

# Style

## 조선일보

MAY 2024  
vol. 269



*Ralph Lauren*  
MADE IN ITALY

PURPLE LABEL BY RALPH LAUREN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스토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층 TEL. 02 3438 6235





## SUBLIMAGE LA CRÈME 수블리마지 라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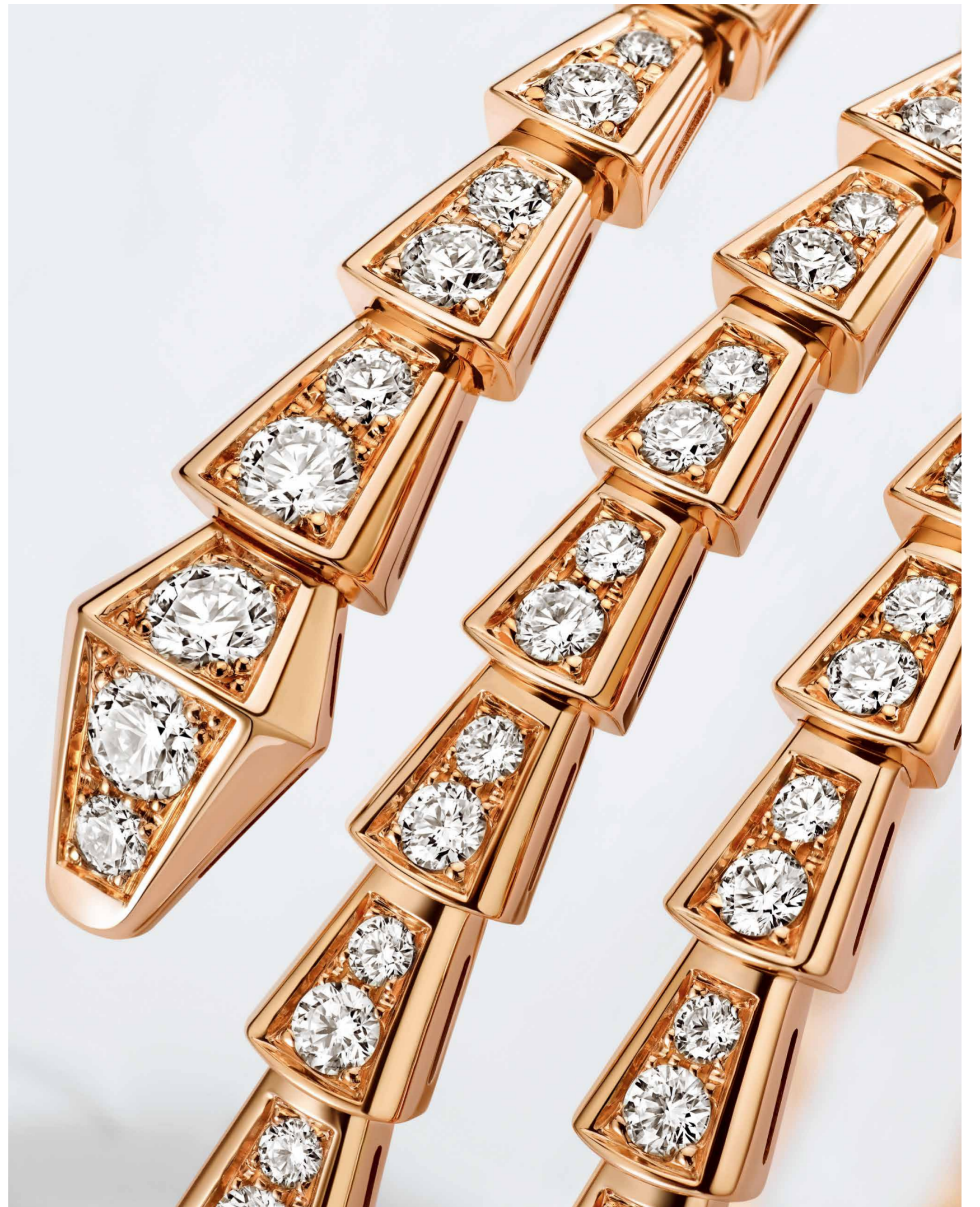
피부 활력과 송고한 광채를 깨우는 궁극의 스킨케어

샤넬의 독자적인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성분은 최초 원료보다 40배 더 농축한 활성 분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성분을 함유한 수블리마지 라 크림은 피부에 활력을 채우고 송고한 빛을 일깨워주며,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집중 작용 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변화된 피부를 느껴보세요.

\* 샤넬 연구소에서 정의한 지표. 피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감, 피부 편안함, 주름, 탄탄한 피부, 균일함, 피부 강화, 광채

# CHANEL





**BVLGARI**  
ROMA 1884





SPEEDMASTER 38mm  
Co-Axial Chronometer

### ICONS THAT SHINE

오메가는 모델이자 배우, 오메가 브랜드 홍보대사인 카이아 거버와 함께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38mm를 선보입니다. 오메가의 새로운 크로노그래프는 52개의 다이아몬드가 파베 세팅된 베젤과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폴리싱 크라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이아 거버의 세련된 스타일에 완벽한 마무리를 더하는 타임피스입니다.

  
**OMEGA**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고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대구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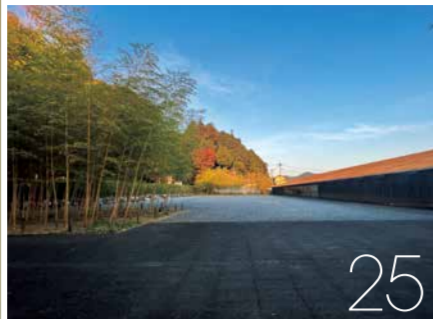


# DIOR





22



25



알프 로렌 퍼플 라벤 2024 스프링 달리버는 프 랑스령 폴라리아 열대 섬 라이아티아의 아름다운 해안선에서 영감을 받았다. 일상의 리치와 편안 함을 중심으로 시트리아 스타워밍의 풍부한 텍스 처와 인디고, 클래식 덴, 소프트 카키, 오프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 톤으로 선보인다. 고급스럽고 소비하면서도 사치를 초월한 알프 로렌의 방식으로 마스터 로렌의 진정한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컬렉션이다. 문의 02-3438-6235



34



18

- 20 **시간, 그 경이로운 진리** 까르띠에의 주얼리는 유구한 시간을 거쳐 탄생 한 보석과 경이로운 자연, 전세계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과 독보 적 공예 기술의 장수를 담고 있다.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Cartier, Crystallization of Time)> 전 시에서 매종의 소장품과 아카이브 자료 및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 소장자들의 현대 작품을 통해 까르띠에의 고유한 문화와 창조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 22 **긴 가리를 달리는 '심플'차 주법의 미학을 말한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알려지기도 하는 '도시가 몇몇 천재의 기획이 아닌 복잡다단한 유기체 이듯 건축도 '스타키텍트(starchitect)'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자신의 이 름을 내건 현대의 스타 건축가를 기리며 상업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셀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지만 '사업가로 바라볼 때 대중을 경탄 하게 만드는 스타키텍트'와 '도시의 기억으로 남는 공공적 이미지'를 구현하 는 일은 많은 이들이 열망할 만하다. 국가 차원의 건축 강국이기도 한 모 국 일본의 무대를 넘어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도시의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접수 중인 건축가 구마 겐고(Kengo Kuma).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적 가 치를 세계에 심고 싶다는 그의 포부를 직접 들어봤다.
- 25 **'작은' 건축의 경향이 선사하는 '소확행'** 잘 짜인 재미들처럼 여기저기로 정교하게 뻗어 있는 신로센 노선도 파해 가는 도차기엔 나스군의 작은 마 을 나카가와마치(Nakagawa-machi), 온갖 행사로 점철된 도쿄에서의 '이트 워크' 일정을 마치고 구마 겐고(Kengo Kuma)와의 인터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잠시 반쯤만 도상에서 벗어나 바람도 쐬 곁 그를 상징하는 '작은' 건축, 익한 건축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 작업의 하나 인 비토 히로시게 미술관(Bato Hiroshige Museum of Art)을 방문하 고자 나스로 향했다.
- 26 **PERFECT FOR YOU** 뛰어난 소재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매번 하이 켈 리티의 백과 의상을 선보이는 알프 로렌에서 5월을 맞아 제안하는 스페 션 워시 리스트.
- 30 **BEYOND THE CLASSIC** 이그노트 리더로 재탄생한 펜디 파카부의 뉴 타일리스 클래식.
- 32 **ULTIMATE REPAIR** 피부 본연의 활력과 송고한 광채를 일깨우고 독보 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바닐라 플라-니올리아의 유효 성분을 풍부하 게 담아낸 사벨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 34 **THE BEST GIFT** 5월, 당신의 사랑과 감사를 대신 전해줄 선물 컬렉션.
- 44 **TRUE ORGANIC** 엄격한 동물 복지 표준과 환경에 따라 생산하고 가공 하거나, 재료로 쓰인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품에만 허 락되는 유럽연합(EU) 유기농 인증. 나 자신은 물론 지금까지 고려한 건강 한 라이프를 위한 첫 단추다.
- 46 **EDITOR'S PICK** 소장욕을 자극하는 예쁜 패키지가 더해 선물하기 좋 은 이달의 뷰티템.

# Style 조선일보

Issue.269 May 202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장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 신정임 sj@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교열 | 이종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영경 분해 제판 | 사설 인쇄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원로 413 현대 하이패션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http://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HUBLOT



갤러리아 EAST 02 540 1356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본점 02 2118 6208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 3213 2277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 242 2691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051 810 4123  
 신세계백화점 본점 02 310 533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 3479 6191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 661 1808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051 745 1346  
 신세계백화점 대전 Art & Science 042 607 8134  
 현대백화점 본점 02 3438 603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 3467 8733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 5170 1168  
 현대백화점 더현대 대구 053 245 2260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02 3277 0185

hublot.com • f • t • i • s

빅뱅 유니코  
 18K 킹 골드와 세라믹 케이스  
 인하우스 유니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 LYRICAL HARMONY

올해 워치스 & 원더스(Watches & Wonders)에서 반클리프 아펠이 공개한 특별한 워치를 소개한다. 2008년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출시한 레이디 아펠 데이 앤 나잇(Lady Arpels Jour Nuit) 워치를 2024년에 새롭게 선보인 것. 케이스 지름 38mm 레이디 아펠 데이 앤 나잇 워치와 33mm의 레이디 데이 앤 나잇(Lady Arpels Jour Nuit)이 그 주인공이다. 이탈리아 무라노 자형의 글라스 장인들이 제작한 어벤추린 글라스를 장착한 이 작품들은 별이 빛나는 밤을 새롭게 표현해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더한다. 무한히 펼쳐진 우주를 구현한 다이얼에 옐로 사파이어로 태양을, 다이아몬드로 달과 별을 표현해 반클리프 아펠다운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준다. 문의 1877-4128



## SHINE ON ME

보가만 해도 살리는 파스텔컬러 뷰티 신제품 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디올 뷰티 르 발 하운즈투스 라미에르 에디션** 디올 르 발 출시 11주년을 기념해 하우스 시그니처 패턴인 하운즈투스를 패자기에 담았으며, 샤아부터, 호호파 오일 등 보습에 효과적인 성분을 더해 촉촉함을 선사한다. 50ml 8만원대, 문의 080-342-9500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립 세럼** 화이트 가젤마이 추출물로 매끈한 입술에 영양을 공급하며, 끈적임 없이 가벼운 텍스처로 수시로 덧바를 수 있다. 11ml 7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자형시 뷰티 스킨 리소스 인텐스 하이드라-힐라프 마스크** 자연 유래 성분을 담은 기술 뷰티 코스몰렉스스로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며 질타입으로 산뜻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다. 50ml 8만원대, 문의 080-801-9500 **글립 알루메드 하이아터 4U 팔레트** 아티스트 전성분이 든 청량한 브랜드로 핑크, 샴페인, 블루, 라벤더 등 네 가지 감각적인 컬러를 담아 또렷한 입체감을 살릴 수 있으며, 아이돌처럼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11.5g 4만3천원대, 문의 1522-6653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 INSIGHT

편입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그대에게 푸른 향기를

소중한 이에게 특별한 향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선사해보면 어떨까. 이따미니 뷰티에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담은 베티버 다베를 제안한다. 청량자 이따미나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인상 깊게 다가온 자연을 향으로 선보인 프라베 레 조리인 중 하나로, 2008년 베티버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적이 있다. 맑고 푸른색으로 새롭게 탄생한 베티버 다베는 베르가모트를 시작으로 레몬과 민다란의 상큼함이 돋보이며 카다멈, 핑크 페퍼, 코리안다의 시원하면서 섬세한 노트가 은은한 풀 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 조각들 모양을 다한 시그니처 패키지가 디자인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50ml 20만원대, 100ml 32만원대. 문의 080-022-3332



## DOUBLE OBSESSION

손목을 우아하게 감싸 매혹적인 존재감이 돋보이는 더블 스트랩 워치의 매력. (왼쪽부터 차례대로) **에르메스 워치 케어프 코드** 깨끗한 느낌을 전하는 스틸 케이스에 4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이얼에는 96개의 다이아몬드로 영커 체인 세팅을 완성해 고급스러움을 부각했다. 핑크 그레이 악어 더블투어 스트랩을 재조합하며, 퀴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볼가리 세르펜티 투보스** 손목을 감싸는 뱀의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여성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배가한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35mm 케이스, 폴 파베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다이얼이 화려한 맛을 더해준다. 퀴츠 무브먼트로 구동하고 최대 30m 방수 기능을 갖는다. 9천원대, 문의 02-6105-2120 **쇼피드 해피 다이아몬드** 2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사이메 총 0.24카트의 무빙 다이아몬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티워티 자개 다이얼이 유니크한 무드를 부여한다. 1천5백50만원, 문의 02-6905-338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윤지영**



HERMÈS  
PARIS

Faubourg calling





봄이 무르익어가는 5월, 서울 강남 입구장에 동시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등장했다. 캔버스에 손가락으로 물감을 쌓아 올리는 회화로 잘 알려진 오치균(b. 1956) 작가가 15년 동안 이용한 작업실이 있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오 뮤지엄(Oh Museum of Art)'이다. '갈', '사복', '산드레' 등 대표 시리즈를 탄생시켰고 한동안 매너리즘의 출구를 찾지 못해 해마다 다른 형식의 작품을 사적하게 해준 공간이기도 하다는 그의 작업실은 이제 다양한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대중과의 소통과 만남을 이끄는 유기적인 '아트 스페이스' 역할을 다져갈 예정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약 695㎡(1백80평) 규모를 갖춘 오 뮤지엄은 이밖에 건축가 홍경모의 리모델링 작업을 가졌는데, 최소한의 침묵만 남긴 단정한 형태의 건물 외관이 은둔형 작가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고 내부도 전반적으로 어둡다. 벽면은 마치 손가락으로 물감을 덧칠하는 작가의 작업 방식을 닮은 듯 회색 시멘트를 한꺼 한꺼 올려 만든 느낌이다. 개관전 1부에서는 자연의 모습과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오치균의 새로운 유리 조형 작업을 선보이는 <Glass Drawings in Three Dimension>전이 펼쳐진다(9월 29일까지). 1일 3회오전 10시 30분~12시 / 오후 1시 30분~3시 / 오후 3시 30분~5시 운영되는데, 회차당 최대 2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13세 이하는 관람 불가). QR코드를 이용한 작품+전시 해설을 위해 아이폰 개별 지침을 권장한다.

홈페이지 <http://ohmuseumofart.org>  
문의 02-515-9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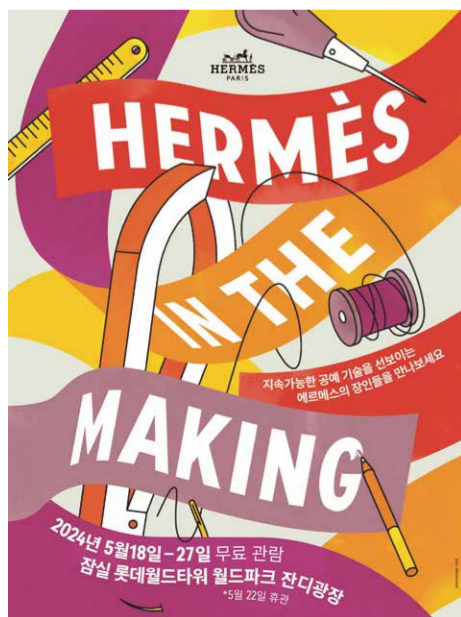
새로운 영감의 공간, OH MUSEUM OF ART

## FLORAL FEVER

타이완스 클래식에 걸맞은 알프스 로렌 클래식에서 모던한 디자인에 걸맞은 포인트를 준 다일론 셔츠를 선보인다. 소재의 장인답게 말버리 실크가 저리 소재로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었으며, 약간의 오버사이즈 핏에 편안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코도에서 탄생한 올브레 플로럴 모티프의 패턴은 우아하면서도 개성 있는 룩 연출을 도우며, 블루송 소매와 머더오브릴 소재의 버튼, 캐시울 안감과 플라켓을 따라 연출된 계단식 러플까지, 다채로운 디테일과 섬세함이 돋보인다. 3백70만원대. 문의 02-3467-6560



## 장인의 세계



에르메스의 독창성과 혁신을 경험할 수 있고, 장인들의 작업 공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에르메스 인 더 메이킹 (Hermès in the Making)> 전시가 오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야외 잔디광장 '월드파크'에서 열린다. 탁 트인 공간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이번 행사는 '장인 기술의 보존과 계승', '소재에 대한 존중과 탁월한 품질', '장기적 노력과 헌신',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브랜드 역사의 기반이 되는 4개의 배경 테마로 구성된다. 또 오늘날의 에르메스 제작 공정을 통해 어떻게 장인 기술이 접목되어 보다 견고한 오브제가 완성되는지 엿볼 수 있고, 에르메스의 다양한 메티에(métier, 기술) 장인들이 참여해, 그들의 공구, 소재, 노하우, 계승 정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입장은 에르메스 홈페이지 (Hermès.com)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 올림픽의 유산

약 1백 일 남은 2024년 파리 올림픽, 올림픽 공식 타임라인 오메가 시계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크로노스코프를 이틀 기념한다. 새로운 케이스 지름 43mm로 선보이며,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상징하는 골드와 블랙, 화이트 컬러 조합의 네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베젤을 갖춘 폴 스티어리스 스틸 버전, 세라믹 베젤과 오메가 인의 옐로 골드 합금으로 은은한 색조와 오래 지속되는 광택으로 유명한 18K 문사인™ 골드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을 더한 버전을 포함한다. 은백색 오팔린 다이얼과 1940년대 달팽이 디자인의 짙은 회색 타임 눈금 등은 그대로 유지해 오메가 올림픽 에디션의 아이코닉함을 가득 담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의 02-6905-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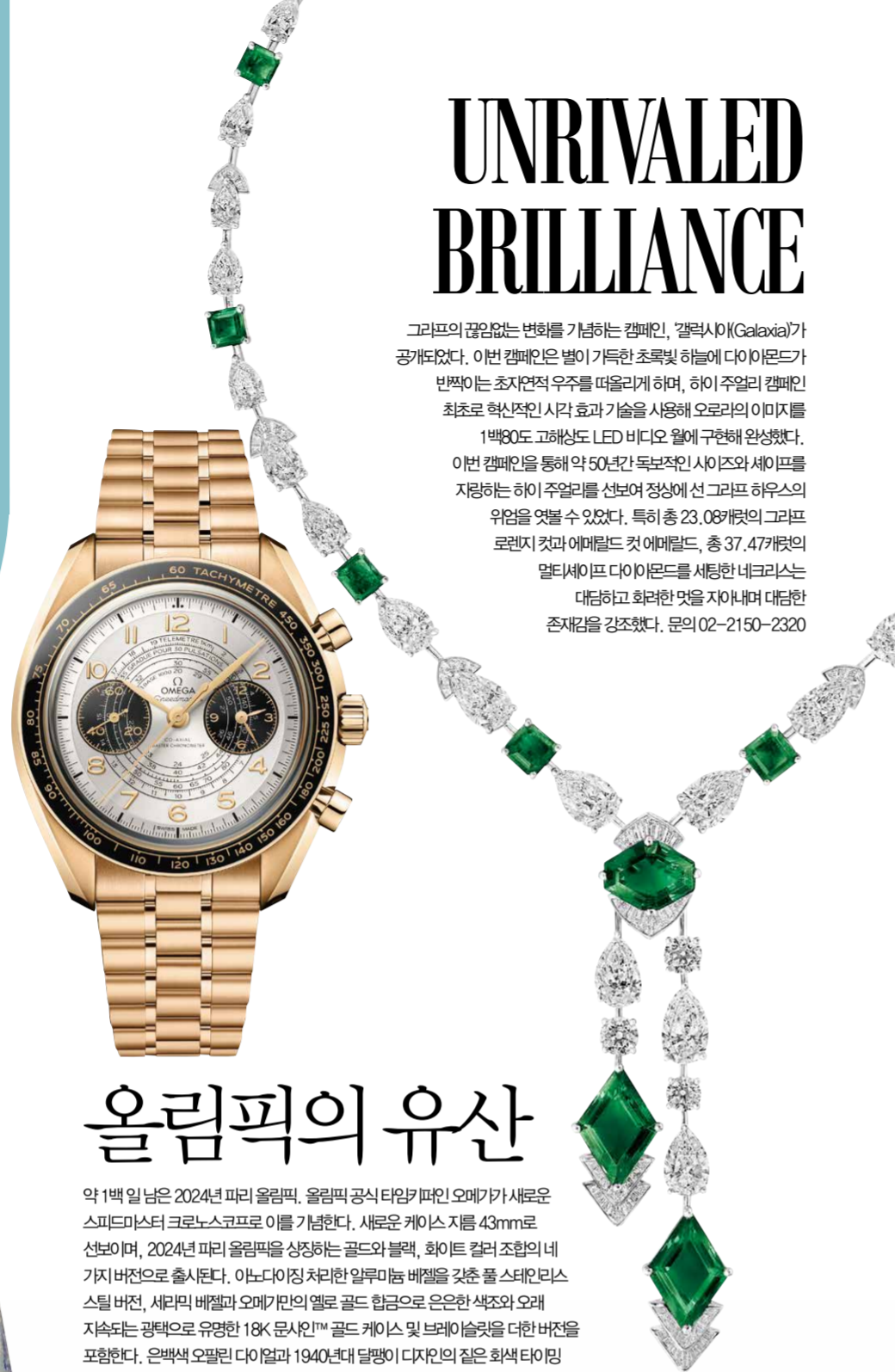


## LET IT BAG

작지만 가볍고 실용성까지 갖춘 2024 S/S 시즌 뉴 미니 백.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스톤백 스타일로 완성했으며, 시트러스 계열 과잉인 유자에서 영감을 받아 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옐로 컬러를 담은 콜백스 나노 유주 거울 미팅. 문의 02-2150-2332. 시안장식을 기린 블랙 & 화이트 컬러 트윈데에 골드 메탈 소재 사벨 로고 클로저를 더한 미니백 거울 미팅. 문의 080-905-9628. www.chanel.com, 스와로브스키와 크리스탈로 장식하고 부드러운 나피 가죽으로 제작한 골드 컬러 마이크로 로코백 2백34만원. 발렌타노 거울미팅. 문의 02-2015-4655. 포토그래퍼 최민정 에디터 신정림

## UNRIVALED BRILLIANCE

그라프의 끊임없는 변화를 기념하는 캠페인, 갤럭시(Galaxia)가 공개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별이 가득한 초록빛 하늘에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초자연적 우주를 떠올리게 하며, 하이주얼리 캠페인 최초로 혁신적인 시각 효과 기술을 사용해 오로라의 이미지를 1백80도 고해상도 LED 비디오 월에 구현해 완성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 50년간 독보적인 사이즈와 세이프를 자랑하는 하이주얼리를 선보여 정상에 선 그라프 하우스의 위엄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총 23,089개의 그라프 로렌지 컷과 에메랄드 컷 에메랄드, 총 37,477개의 알티세이프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네크리스는 대담하고 화려한 멋을 자아내며 대담한 존재감을 강조했다. 문의 02-2150-2320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라벤 스킨 캐쉬mere 셔츠 70만원대, 라벤 소재로 완성해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한 무드를 동시에 지어내는 쉐드 핸드 테일러드 라벤 도비 재킷 3백만원대 모두 알프 로렌 퍼플 리벨.



친환경 소재로 완성했으며,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프레임을 갖춰 데일리 액세서리가 도아줄 POS 02-NV 23만 천원 퍼센트오브



전반의 로고가 멋스러운 브라운 레더 벨트 가격 미정 구찌.



감각적인 컬러를 더한 토즈 고노 드라이빙 슈즈 80만원대 토즈.



패셔너블한 패턴이 눈길을 사로잡는 7세트 사용 카드 케이스, 11,4X7,6cm, 42만원 보타가 배너타.



40mm의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가 클래식한 멋을 부여하는 하스토릭 0 데리안 1921 6만5천원 바세론 콘스탄틴.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이 등장한 바세론스 버킷햇 41만원 MCM.



소프트 레더로 완성해 인정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엑스테라 핑크 22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양면 착용이 가능한 키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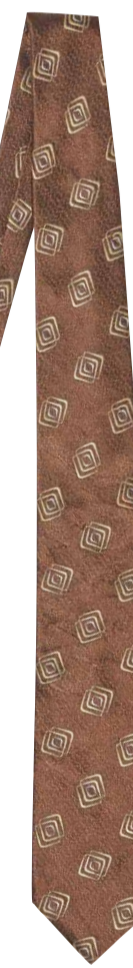


8월 10월을 상징하는 연가 기호인 881010이라는 카탈 12만9천원 몽클레르.

치렁치렁 단정함 무드를 보여주는 알파는 재워 거워 미영, 라벤 소재의 아쿠아 사츠 1백20만원 두루 로렌피아나.

# for him Selection

결혼식이나 각종 모임에 알맞은 단정한 차림새, 소프트 포멀 룩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고급스러운 패턴 디자인이 차별화 무드를 부여하는 스크스캐 패턴 타이 128만5천원 보스.



부드러운 송이재질로 완성한 램블 메신저백, 30X23cm, 5만7천5천원 보타가 배너타.



2개의 링이 연결된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엑스테라 핑크 22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가방 중간 부분이 접힌 듯한 실루엣이 유니크함을 더해주는 송이재질 소재의 토트백, 33X44X16cm, 3만6천원대 파리아노.



18K 베이저 골드 소재의 크로 크로쉬 스몰 링 4만9천원대 사벨 황인 주얼리.



# TUMI



PERFECTED TO PERFORM  
INTRODUCING TUMI GOLF

VISIT US IN STORE OR ONLINE AT TUMI.COM



# 시간, 그 경이로운 진리

까르띠에의 주얼리는 유구한 시간을 거쳐 탄생한 보석과 경이로운 자연, 전 세계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과 독보적 공예 기술의 정수를 담고 있다.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Cartier, Crystallization of Time)> 전시에서 매종의 소장품과 아카이브 자료 및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 소장자들의 현대 작품을 통해 까르띠에의 고유한 문화와 창조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Cartier, Crystallization of Time)> 전시가 개최된다. 까르띠에 현대 작품의 독창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는 2019년 도쿄 국립현대미술관(National Art Center, Tokyo)에서 선보인 이후 5년 만에 서울에서 선보이는 전시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까르띠에가 특별 협력한 이번 전시에서는 까르띠에 컬렉션으로 불리는 소장품과 아카이브 자료 및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 소장자들의 현대 작품을 포함한 3백여 점을 모아 까르띠에 스타일을 이루는 문화와 창조적 가치를 보여준다. 시간을 축으로 해 소재의 변신과 색채, 형태와 디자인, 범세계적 호기심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종의 선구자적 정신과 독창적 비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전시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시간의 공간, 미스터리 클락과 프리즘 클락

전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까르띠에의 예술성, 창의성, 뛰어난 기술의 정수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미스터리 클락과 프리즘 클락으로 이를 보여준다. 까르띠에의 클락은 단순한 장식 예술을 넘어 현재가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가는 시간의 신비한 원리를 표현한다. 종종 시계의 경이로움(marvels of horology)이라 불리는 시계비늘은 무브먼트에 연결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소재의 변신과 색채

첫 색채에서는 까르띠에가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해 독보적인 노하우로 소재와 색채를 다루는 법을 소개한다. 20세기부터 까르띠에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더욱 돋보이도록 하는 데 필요한 플래티넘을 활용하는 기법, 규화물 같은 독특한 소재, 다양한 보석을 이용한 대담한 색채 조합부터 사파이어와 그린 에메랄드, 또는 형형색색의 루피 프루티까지, 참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향한 까르띠에의 혁신은 계속된다. 무엇보다 까르띠에 작품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고 확장되는 매종의 장인 정신이 담긴 특별한 기술이다. 까르띠에는 클립트, 에나멜링, 그레늘레이션, 오키니 소재 상감세공(장미꽃, 말뚝) 등에 담긴 장인 정신을 발전시키고 전승하기 위해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전통 공예 분야의 최고 기능 보유자로 인정하는 마테 데 아르(Maitres d'Art) 칭호를 받은 장인의 감독 아래 극소수 장인들이 공방을 이끌고 있으며, 공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후계자가 드문 수공예 기술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형태와 디자인

전시는 순수한 선과 형태의 창조적 본질을 찾아 떠나는 까르띠에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자연 세계에서 드러나는 선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에센셜 라인(Essential Lines)'과 '스피어(Spheres)', 주얼리의 구조적 요소에 주목해 주얼리가 어떻게 그 자체로 건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뉴 아키텍처(New Architectures), 움직임이 착시를 통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품에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옵틱스(Optics)', '혼돈 속의 조화(Harmony in Chaos)', '일상에 깃든 아름다움(Beauty All Around)'을 통해 젤스톤에서 얻은 영감이 어떻게 주얼리 디자인으로 연결되는지, 산업계나 패션계의 쿠투르 등 주얼리 세계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온 영역에서 매종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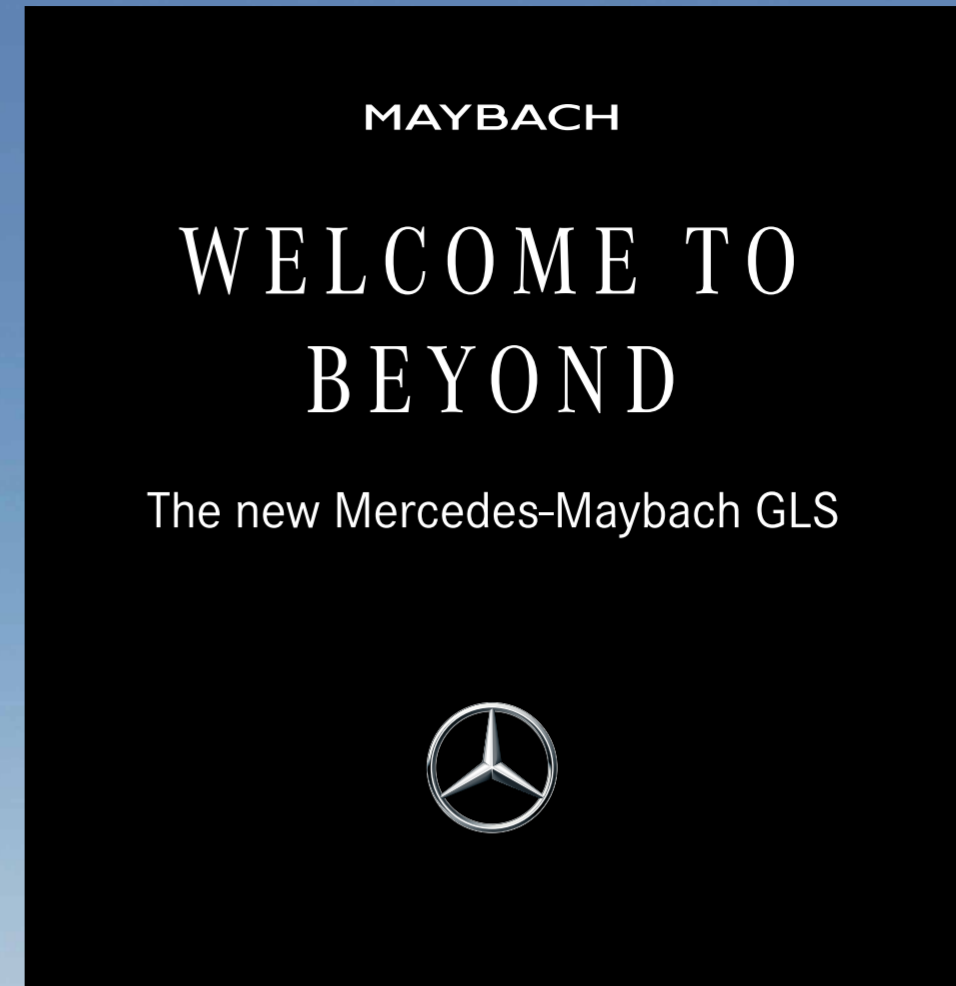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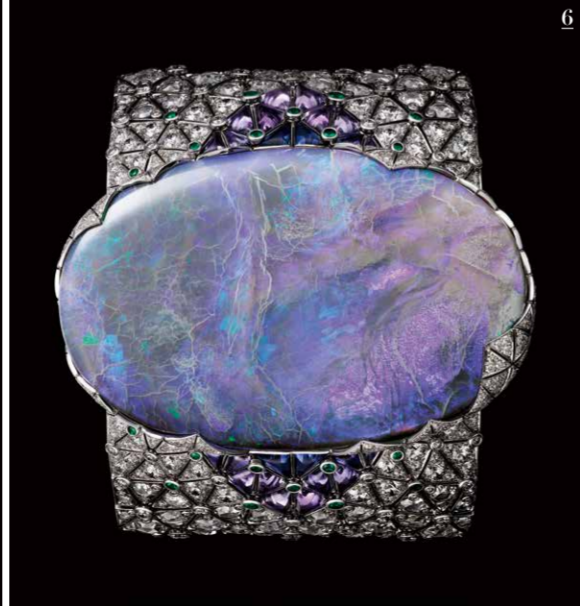
## 범세계적 호기심

마지막 색채에서는 까르띠에 디자인의 원동력인 범세계적 호기심을 주제로 세계의 문화, 동식물에서 영감을 얻은 독보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세상을 향한 루이 까르띠에의 끝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완성한 이트 칼렉션과 매종의 디자인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리아브라에서 비롯된 호기심은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매종은 이러한 호기심을 발판으로 과거와



1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 등 다채로운 소재 조합이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개인 소장품인 네크리스. 2 총 146.97카트의 브리올레트 컷 사파이어의 대담한 실루엣이 시선을 끄는, 특별 주문 제작한 한두 네크리스. 3 총 34.277카트의 정비아산 카보숑 컷 에메랄드 1개를 시팅한 플라티넘 소재의 브리오넬. 4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신비로움을 강조한 모델 A 미스터리 클락. 5 화이트 골드와 블랙 레진의 조화가 특징인 브리오넬. 6 총 189.345카트의 오발 17개를 중심으로 대담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브리오넬.

현재,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독특하고 혁신적인 작품을 탄생시켰다. 1백 70년이 넘는 기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중앙 아메리카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지형이 등장한다. 이러한 호기심의 여정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지형들의 건축, 신화, 패턴과 색상은 까르띠에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다. 또 이 색채에서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자연이 창조한 기적의 신물을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추상적인 해석을 곁들여 주얼리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식물은 많은 주얼리에게 시련받이온 모티프지만, 까르띠에는 오히려 대표되는 식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창조했다. 다채로운 보석으로 구현한 맹렬하면서도 기품 넘치는 팬더, 목을 유연하게 감싸는 뱀, 기개 넘치는 호랑이 등의 야생동물은 상상의 세계를 펼쳐낸다. 까르띠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자 하는 동물의 핵심적 특징을 잘 잡아내는 데, 이는 파충류나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모티브로 한 매종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77-4326 애프터유저경



## Mercedes-Maybach GLS 600 4MATIC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830kg, 연비 등급: 5등급, 복합: 6.1km/ℓ, 도심: 5.4km/ℓ, 고속: 7.3km/ℓ, CO<sub>2</sub> 배출량: 288g/km, 자동 9단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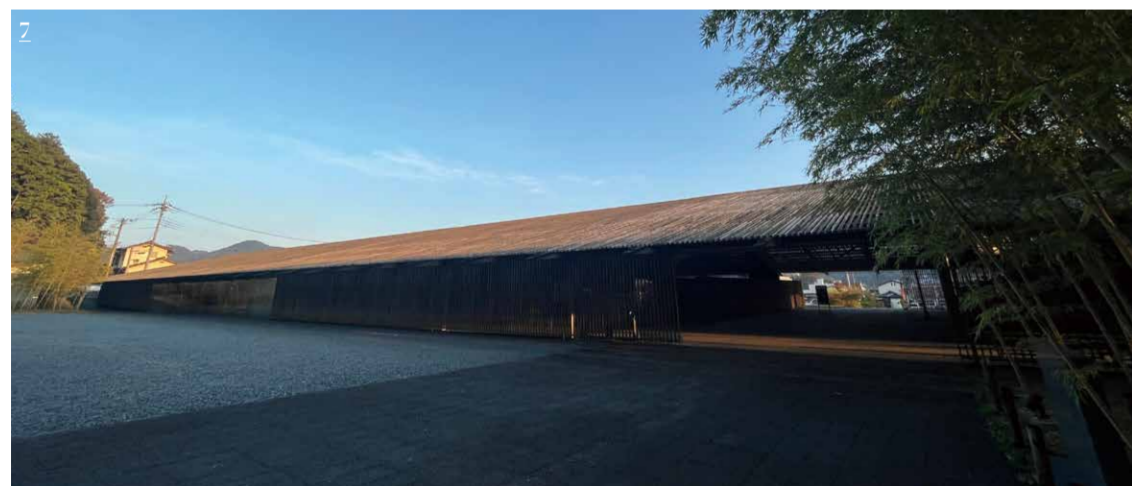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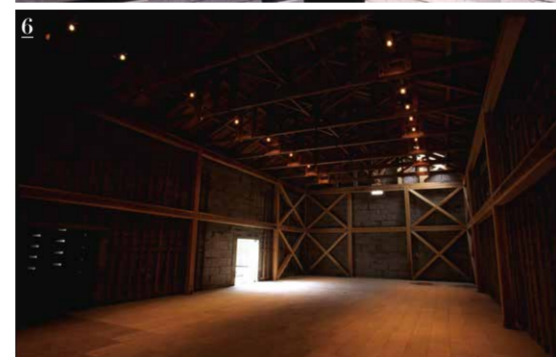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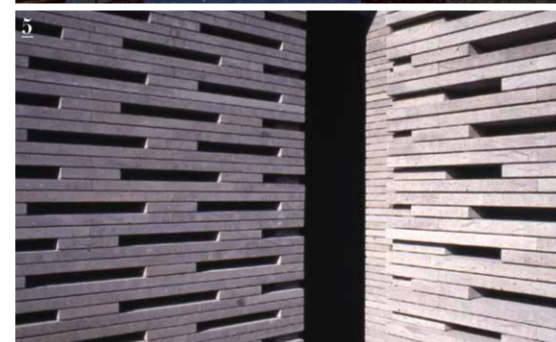
1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있는 구마 겐고(Kengo Kuma)의 초가집(1991) M2. 새로운 감성의 자동차를 디자인할 수 있는 새 장소를 만들자는 차원의 꿈에서 실현시킨 건축물로 과거(이오니 아식 가 등), 미래(고속도로의 방음 패널), 스케일, 소재를 모두 뒤섞은 결과라고. 2 M2의 내부 이트라룸. 3 일본 47개 지역에서 모은 목재를 사용한 신 국립 강가점용 청문 너머 배경으로 삼아 자신의 스튜디오이자 회사 KKA(Kengo Kuma & Associates)의 접견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구마 겐고. 4~6 일본 도지카현 나스의 석재상이 돌로 지은 오래된 쌀 창고를 작은 미술관으로 개장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설계한 돌 박물관(Stone Museum), 재석장에서 나오는 아사노석을 사용하고 석재 기술자들을 활용했기에 공사가 제대로었다고 한다. 경박한 화장을 하듯 콘크리트에 얇은 돌을 붙이는 방식을 부창하고 돌을 작은 막대 모양으로 지은 다음, 흙을 두고 돌을 쌓아 올리는 새로운 공법에 도전했다. 이 프로젝트로 특독한 돌 쌓는 기술 덕분에 나중에 기도 키와 무사노 류지(무사노 류지)는 대규모 석조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구마 겐고는 강조한다. 7 일본 도지카현 나스군의 작은 마을 나가키야마치(Nakagawa-machi)에 지리란 비토 비토시 미술관(Bato Hiroshige Museum of Art)의 인물. ※ 1, 2, 4~6 이미지 제공 KKA ※ 3, 7 Photo by 고성연

문화 예술 생태계에 걸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젠가 부터 '일본'이라고 하면 절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는 '건축'이다. 외국인 친구들이 요즘 '한국'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흔히 'K-팝'을 연상하는 것처럼, 그런데 건축은 개인이 자마다의 활동을 자유롭게 펼치는 각개전투 느낌보다는 왠지 모르게 '국가 대항전' 같은 이미지를 동반하곤 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흥한 데다 설계 공모전을 통해 건축 스튜디오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즈커 수상자를 볼 때 국제적으로 시선이 가기 마련인데, 1979년부터 해마다 발표해온 긴 목록에서 일본은 유독 눈길을 잡아끈다.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9명의 건축가가 프리즈커상을 휩쓸 터에 '최다 수상국'의 명예를 누리고 있다. 1954년생인 구마 겐고(Kengo Kuma)는 아직 그 대열에 오르지는 않았지만(수상자는 1930~40년대 출생이 많다)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프로젝

트를 진행하며 오늘날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축가 브랜드'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 #일본 문화와 건축에 대한 무지를 각성하면서 맞은 중대한 전환점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목조 가옥에서 자란 구마 겐고는 스스로를 어느 도시에도 완벽히 속하지 않는 '경계에 있는' 존재라 여겼다고 한다. 늘 전철을 타고 두 도시를 오가며 성장한 그는 일본 경제 부흥기의 정점을 상징했던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목도했고 그 뒤로도 주말이면 국립 요요기 경기장으로 수영을 하러 가곤 했다. 바로 일본 최초로 프리즈커상(1987)을 받은 단계 겐조(Kenzō Tange, 1913~2005)가 설계한 경기장이다. 당시 올림픽의 잔상, 그리고 수영장지의 위용과 설계 미학에 한껏 매료된 '소년' 구마는 단계 겐조와 같은 건축가를 꿈꾸었는데, 반세기가 훌쩍 넘게 흘러 막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 interview with 구마 겐고(Kengo Kuma)

# 긴 거리를 달리는 '삼륜차 주법'의 미학을 말하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도시'가 몇몇 천재의 기획이 아닌 복잡다단한 유기체이듯 건축도 '스타키텍트(starchitect)'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건축 설계사, 구조 공학자, 엔지니어, 건설 관리자, 실내 디자이너와 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고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현대의 스타 건축가를 가리켜 상업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셀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지만 '사업가'로 바라볼 때 대중을 경탄하게 만드는 스펙터클과 '도시의 기억'으로 남는 공공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일은 많은 이들이 열망할 만하다. 뛰어난 상식 자본을 무기로 큰 보수를 누리면서도 의뢰인의 요구와 창조성 사이에서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브랜드 건축'은 극히 소수겠지만 말이다. 국가 차원의 건축 강국이기도 한 모국 일본의 무대를 넘어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도시의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접수 중인 건축가 구마 겐고(Kengo Kuma).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적 가치를 세계에 심고 싶다는 그의 포부를 직접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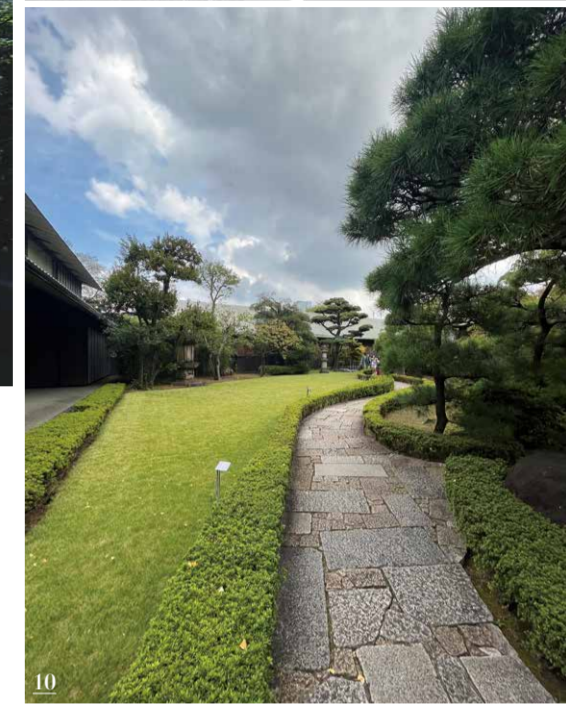
2021년 도쿄에서 다시 열린 하계 올림픽의 신 국립 경기장 설계를 맡게 된 것이다. 이는 어린 시절 품었던 웅대한 꿈을 이뤄낸 건축학도의 경이로운 서사로, 구마 겐고 자신이 직접 쓴 책에도 등장하는, 어찌 보면 지나치게 드라마 같아서 좀 식상하게 들릴 법도 한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낭만적인 스토리텔링에만 매몰된 유형은 아니었다. 오히려 보수적인 일본 사회나 건축계에서 당연시되는 틀을 깨는 사고를 좋아하고 선배 건축가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는 맹랑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교사들이 운영하는 계통의 학교를 나와 도쿄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는 1985년 미국으로 떠나 뉴욕의 컬럼비아대학 연구원으로 지냈는데, 이때는 스스로의 각성을 겪었다. "전통적인 일본 건축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제가 모국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친구들을 제 아파트에 초대해 캐주얼하게나마 '다도(tea ceremony)'를 했어요." 꽤 인기 있는 아티스트였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심지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목수를 통해 일본식 다다미 두 세트를 아주 어렵게 구해 작은 티 하우스를 만들었죠"라고 말했다. 그 다다미 하나가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구마 겐고는 뉴욕 생활을 마치면서 다다미 세트를 선물로 주고 떠났

는데, 시그널 빌딩 작업으로 유명한 조명 디자인의 대가인 에디슨 프라이스(Edison Price)가 그 수혜자였다고. "건축계의 흥미진진한 '진짜' 얘기를 들려주면 붙어있는데, 정말이지 다다미를 좋아했어요. 에디슨이 세상을 뜬 때도 다다미와 함께했다는 얘기를 그의 딸에게서 듣고 몽클했지요."

### #다다미만 하면 이유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프로젝트'의 시기와 스타일의 구축

1986년 귀국해 자신의 스튜디오를 낸 그는 당시 호황에 힘입어 일도 많이 맡았을 뿐만 아니라, 늘 좋아했던 글쓰기에도 매진해 책을 내기도 했다(지금도 그는 웬만한 글쟁이 못지않은 왕성한 저술가). <열 가지 스타일의 집>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건축계 스타 선배인 안도 다다오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런 당돌한 지적(?)이 허용되었다는 것이 다소 놀랍다고 하자, 그는 "신중을 기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대신 안도의 전매 특허인 '노출 콘크리트' 공법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전략적 노림수가 어느 정도 섞였을 듯한 젊은 날의 치기는 그를 업계에서 꽤 유명하게 만들어줬지만 정작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이는 적었다고 구마 겐고는 털어놓았다. 그의 설 명인즉슨, 안도 다다오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의 추종자로 모더니즘을 신봉했는데, '어쨌서 아시아 사람들이 서구의 조류류 (계승) 추앙해야 하느냐'는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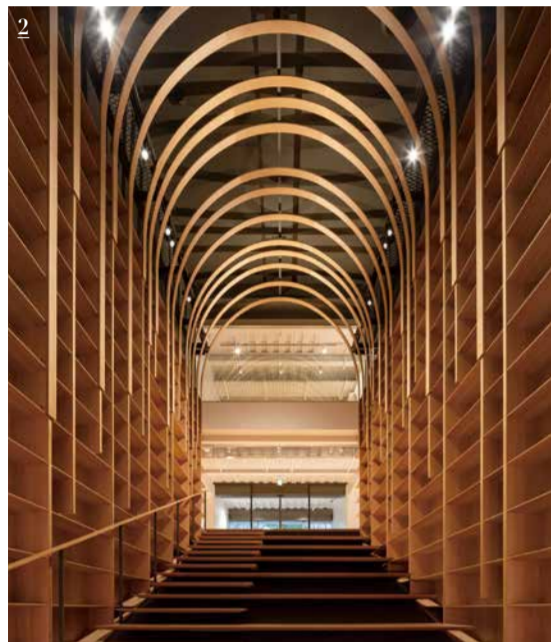
각에서 그의 방식과 태도를 비판했다(안도는 자신의 개 이름을 '르 코르뷔지에'라고 짓기도 했다는 것이다. 자연에 맞서지 않고 부드럽게 호응하는 작고, 약하고, 느린 그의 건축 언어와는 판이한 그의 포스트모던 건축물인 M2(1991)도 그 같은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우리는 이제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구마 겐고의 신념은 이윽고 일본에 담긴 극심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됐다. 불황의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아직은 젊은 건축가였던 그의 스튜디오가 도쿄에서 맡은 프로젝트 가 다 취소되면서 사실상 '제로(0) 가 됐다' 정도였다. 그리하여 구마 겐고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2기(1992~2000)로 분류하는 '일'이 없어 심심한 시기가 도래한다. 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난 10년', '재생의 10년'이라고 부른다. 눈을 '지방'으로 돌려 현지의 자연적인 재료를 다루고 지역 기술자들과의 공동 작업에서 큰 배운과



8 구마 겐고가 30년 이상 스튜디오를 두고 있을 정도로 애정하는 동네인 도쿄 이오이치에 지리란 네즈 미술관(Nezu Museum) 내부. 방수 시트를 이용한 플러터가 장천은 같은 효과를 낸다고. 9 숲속에 지리란 네즈 미술관에서는 깊은 차와 이벤트를 천천히 즐기는 것으로 오키나와도의 스물에서 벗어나 한적함을 맛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10 미술 전시도 보고, 자연을 벗 산악산행을 즐기 수 있는 네즈 미술관은 2009년 문을 연 이래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Photo by 고성연 11 현지의 목수 기술을 이용한 일본 고풍한 유스토크의 나무다리, 철물과 4개의 접합부를 포함한 중심의 기둥에서 다시 접합부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넓히며 카타나 나무 형상을 만들었다. 나무 보호처 다리에 지붕을 얹고 통로 부분은 전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무다리 박물관이었고 이 문을 활짝 열었다고(2010년 완공). 12 일본 이이시현 가스카이시에 있는 GC 프로스토 뮤지엄 리서치 센터(GC Prosth Museum Research Center), 가노다관 3개의 나무 막대 대에 몸을 파 한 정으로 연결하는 사방 십자 조립 기법을 사용해 만든 일란조의 파편리온을 바탕으로 규모를 한층 키워 완성한, 카타나 가구 같은 건축물(3층 건물 10m). 위로 갈수록 휘어 나오는 '플러터' 방식의 외형은 나무의 열화를 막기 위한 것(2010년 완공). 13 프로토스타 지역에 지리란 방대한 아트 센터(자외선-가시선 스펙트럼 내 구마 겐고의 프로젝트 설치 작업인 'Komorebi', Photo by Robin Oggiano ※ 8, 9, 11, 12 이미지 제공 KKA







깨달음을 얻은 시기였기 때문이다. 공업화 이후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디자인의 토대를 '지방에서 찬찬히 발견하고 쌓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일본의 어떤 마을에 가더라도 최고 수준의 숙련된 기술을 지닌 장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가) '정하는) 나무와 돌, 종이'를 비롯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요. 정말 많이 배웠죠." 실제로 이 시기를 겪으면서 진행한 몇몇 프로젝트는 나중에 그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왔다. 쌀 창고를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돌 미술관(2000)과 삼나무 루버를 활용한 바토 히로시게(2000), 그리고 중국 만리장성 옆에 완성한 '대나무집(Great Bamboo Wall)(2002)도 그 대표작인 사례다. 지방에서의 작업을 계기로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개성적인 지방의 프로젝트와 세계화라는, 언뜻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20세기, 21세기로 세기가 바뀌는 사이에 서로

1 지난 2021년 모습을 드러낸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 공식 명칭은 와세다대학 국제 문학관(国文学館). 하루키의 40년 글쓰기 이력을 담은 기록 보관소이자 번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문학사 다양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 건물을 개조했다. Photo by 고성연 2 구마 겐고의 지역화 행적은 콘크리트 상자 모양의 와세다대학 4층관의 층을 나누던 내부 슬래브(slab) 2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통굴 형상을 한 타일 공간을 만들어 넣었는데, 이는 하루키의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감지하기 위한 세계로 끌어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Photo credit: Kawasumi Co., Ltd./Kenji Kobayashi Photography Office, 이미지 제공: KCAA 3 스코틀랜드 동부의 항구도시 던디(Dundee)의 워터프론트를 나무와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간원된 런던 빅토리아 & 앨버트 뮤지엄의 분관 V & A 단지. 2018년 가을 문을 열었다. 외벽은 물속에 갇힌듯, 막대 모양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바탕처럼 무작위로 쌓아 올렸다. 4 도쿄도 시부야구에 있는 메이지 진구 뮤지엄(Meiji Jingu Museum). 기적의 숲으로 불리는 숲과 일체화된 느낌의 설계로 지평선을 넘어서고 차이의 높이를 약화하며 전체를 수평적인 일면 지붕의 집합체로 디자인했다. 2019년 가을 완공. 5 2020년 봄 문을 연 에이스 호텔 교토. 1920년대 중반 유명 건축가 요시다 테쓰로(Tetsuro Yoshida)가 설계한 옛 교토 중앙전화국 건물에 신축한 동이 나란히 자리한다. KCAA에서 리뉴얼 설계 작업을 총괄했다. 6 에이스 호텔 교토의 언덕. 매종 카츠네 카페, 르 리브 등이 들어서 복합 건물로 이어지는데, 7 자정 단지 안에 해산한 정원이 있다. 7 차-해 9월 초 문을 연 일본의 글로벌 갤러리 화이트스톤의 서울 지점(WhiteStone Gallery Seoul) 건물 외관. 기존 건물을 갤러리로 거듭나게 하면서, 외관은 검은색으로 바꿨다. 지하 1층~지상 4층 약 700㎡, 2백12㎡ 규모로 3개의 주요 전시장을 품고 있다. 이미지 제공: 화이트스톤 갤러리 8 신주쿠 작기의 백자 작품이 놓여 있는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의 루프탑(당시 모습). ※ 1, 8 Photo by 고성연 ※ 2~6 이미지 제공: KCAA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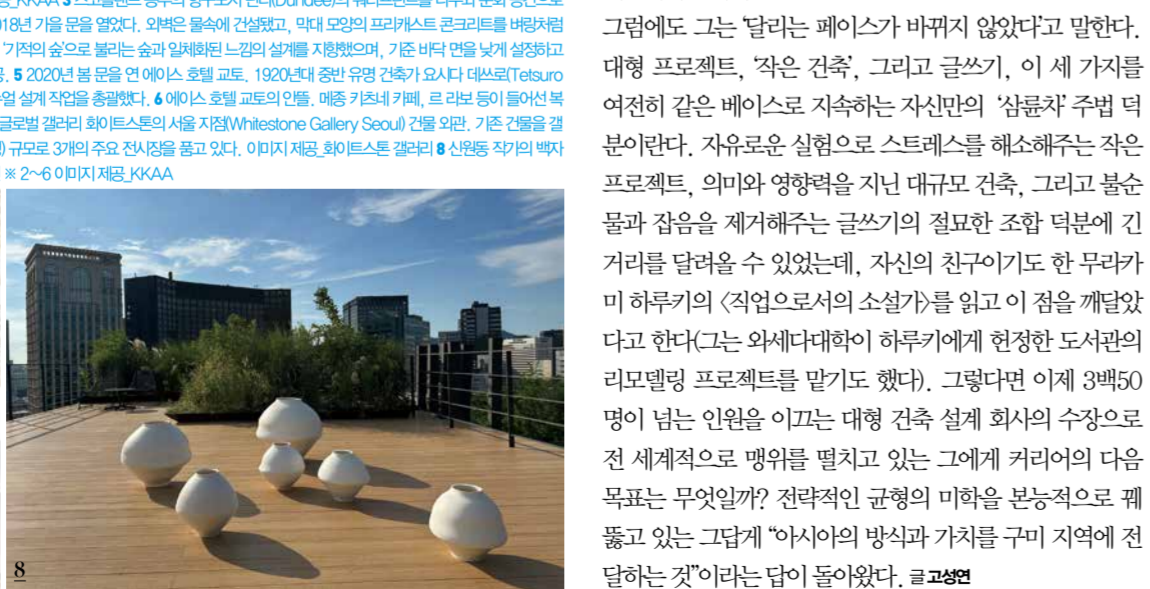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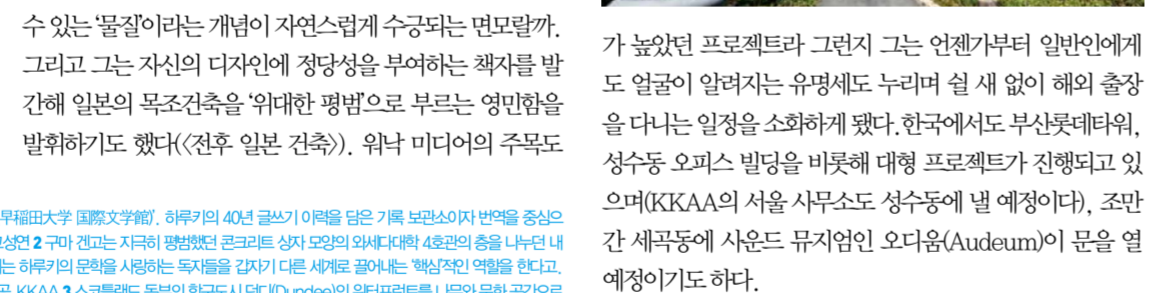
공명하고 공진했다.”(구마 겐고, 나의 모든 일에서 발췌)

**#비슷한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주부의 즐거움**  
그리하여 2000년대 구마 겐고의 프로젝트들을 보면 '작은' 건축이라고 부르기에에는 '뾰이' 눈에 띄게 커졌다. 그가 커리어 여정의 3기(2001~2015)라 부르는 시기로 다양한 규모의 미술관이나 공공·상업 프로젝트를 두루 맡았다. 구마 겐고 스튜디오(KKAA)가 오랫동안 자리해온 도쿄 아오야마 인근의 녹음 짙은 정원이 아름다운 네즈 미술관을 비롯해 워터/글라스 하우스, 마르세유 현대미술 센터, 유스하라 나무다리 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작음'과 '약함'은 그저 건축의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어렵지 않게 만질 수 있다는 유연성 차원의 개념이다. 자연적인 소재와 함께하는 투명성(transparency)과 유연성(fluidity)을 자신의 건축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꼽는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때로는 고층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산업적 재료도 써야 하죠. 하지만 여전히 '재료의 질감을 보여준다'는 맥락에서 제 방식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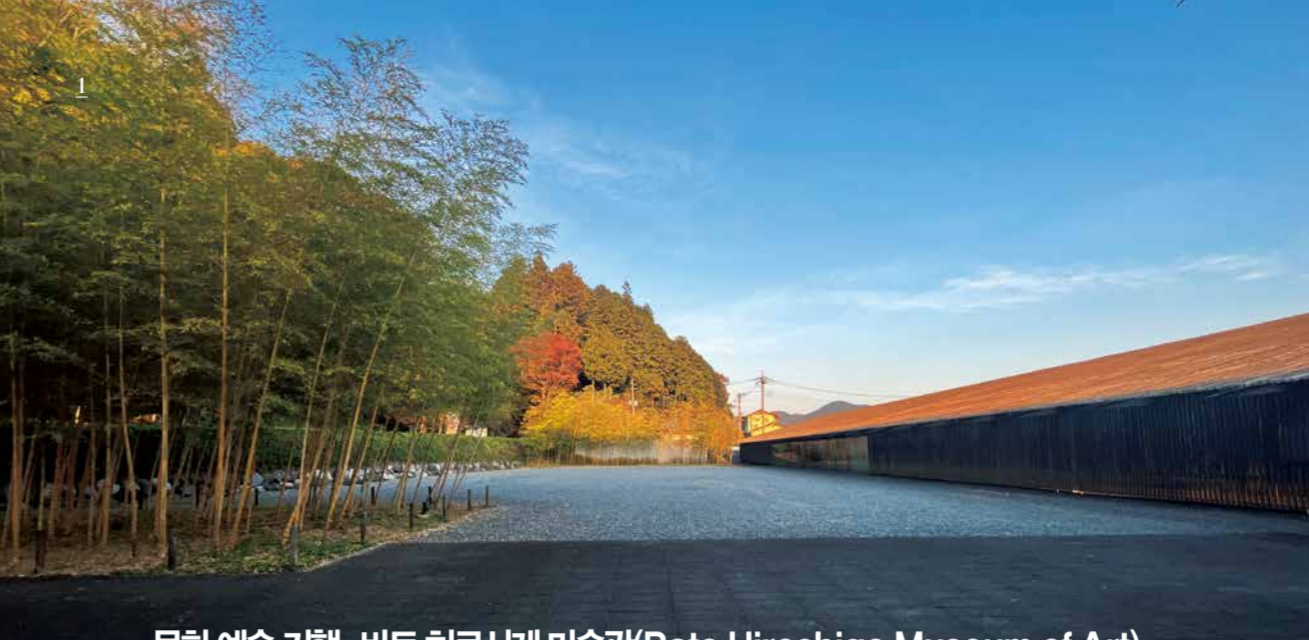
2015년은 단연 그의 커리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로 꼽힌다(2016년부터 이어지는 4기의 단초가 된다). 당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신 국립 경기장 프로젝트 공모를 따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DDP 건축가이기도 한 자하 하디드의 설계가 진행되다가 무산되고 재선정된 사례라 논란이 있었던 프로젝트이긴 하다. 하지만 '나무와 풀을 내세운 자연주의 콘셉트로 친환경성과 전통미를 부각한 구마 겐고표 디자인은 분명 그가 줄곧 추구해온 건축의 미학을 포용하고 있었다. 건축은 '형태가 아니라 인간적인 따스함이 묻어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면모일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디자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책자를 발간해 일본의 목조건축을 '위대한 평범'으로 부르는 영민함을 발휘하기도 했다(〈전후 일본 건축〉. 워너 미디어의 주목도

가 높았던 프로젝트라 그런지 그는 언젠가부터 일반인에게도 얼굴이 알려지는 유명세도 누리며 실 새 없이 해외 출장을 다니는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한국에서도 부산롯데타워, 성수동 오피스 빌딩을 비롯해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KKAA의 서울 사무소도 성수동에 별 예정이다), 조만간 세곡동에 사운드 뮤지엄인 오디움(Audeum)이 문을 열 예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는 '달리는 페이스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형 프로젝트, '작은 건축', 그리고 글쓰기, 이 세 가지를 여전히 같은 베이스로 지속하는 자신만의 '삼륜차' 주범 덕분이다. 자유로운 실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작은 프로젝트, 의미와 영향력을 지닌 대규모 건축, 그리고 불순물과 잡음을 제거해주는 글쓰기의 절묘한 조합 덕분에 긴 거리를 달려올 수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읽고 이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그는 와세다대학이 하루키에게 헌정한 도서관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3백50명이 넘는 인원을 이끄는 대형 건축 설계 회사의 수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명위를 떨치고 있는 그에게 커리어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전략적인 균형의 미학을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는 그답게 "아시아의 방식과 가치를 구미 지역에 전 달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글 고성연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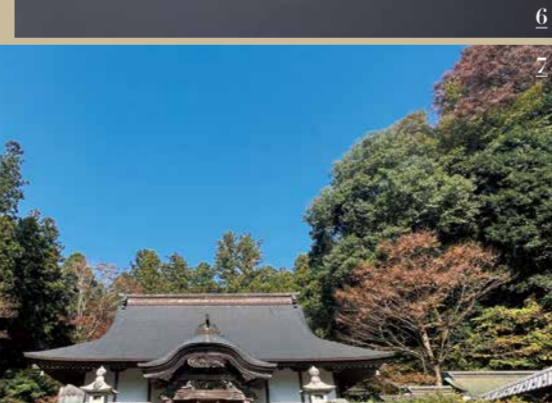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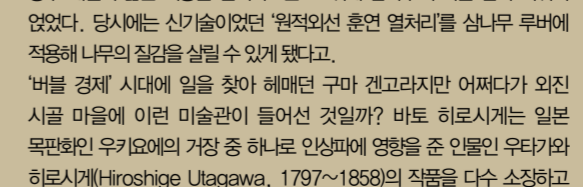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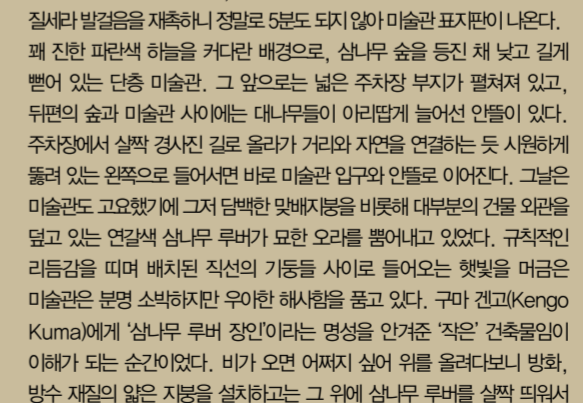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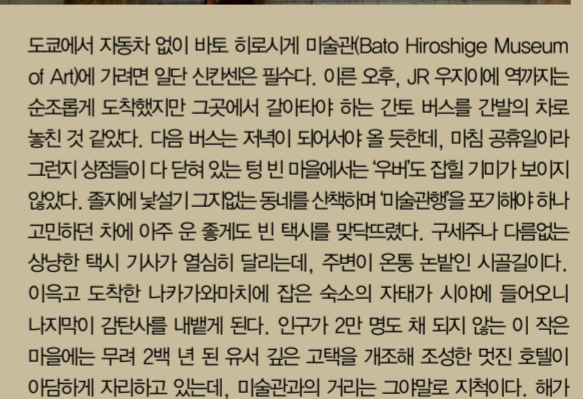
문화 예술 기행 바토 히로시게 미술관(Bato Hiroshige Museum of Art)

# ‘작은’ 건축의 경험이 선사하는 ‘소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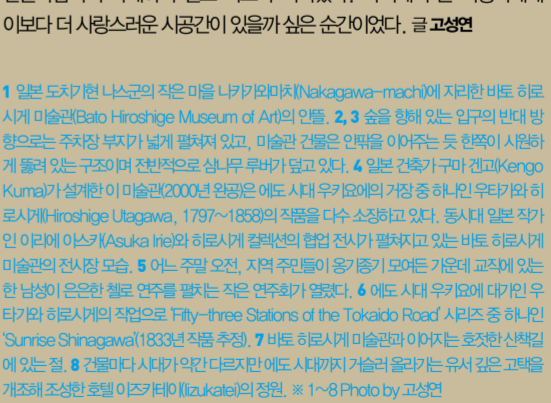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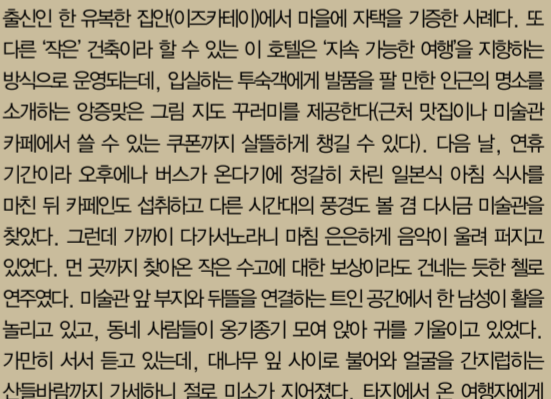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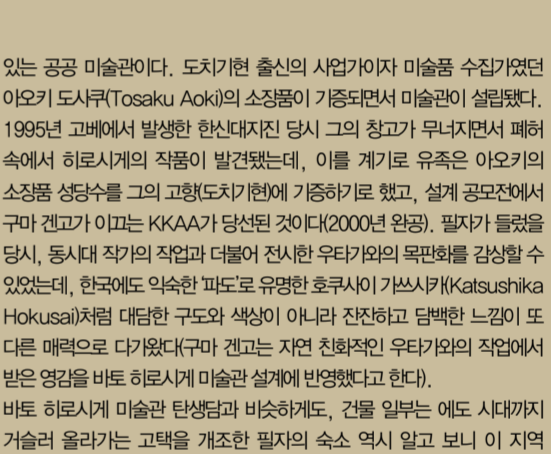
잘 짜인 저미줄처럼 여기저기로 정교하게 뻗어 있는 신칸센 노선도 피해 가는 도치기현 나스군의 작은 마을 나카가와마치(Nakagawa-machi). 일본에서 소도시 여행을 해본 적은 있지만 대중교통은 단 하나의 버스 노선만 존재하는 '젠 시골 동네를 홀로 찾아간 건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온갖 행사로 점철된 도쿄에서의 '아트 워크' 일정을 마치고 구마 겐고(Kengo Kuma)와의 인터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잠시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바람도 쉴 겸 그를 상징하는 '작고, 약하고, 뽀내지 않는' 건축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 작업의 하나인 바토 히로시게 미술관(Bato Hiroshige Museum of Art)을 방문하고자 나스로 향했다.



8



8



8

있는 공공 미술관이다. 도치기현 출신의 사업가이자 미술 수집가였던 아오키 도시쿠(Tosaku Aoki)의 소장품이 가득하면서 미술관이 설립됐다. 1995년 교베에서 발생한 한신대지진 당시 그의 창고가 무너지면서 폐허 속에서 히로시게의 작품이 발견됐는데, 이를 계기로 유족은 아오키의 소장품 성당수를 그의 고향도치기현에 기증하기로 했고, 설계 공모전에서 구마 겐고가 이끄는 KCAA가 당선된 것이다(2000년 완공). 팔자가 들렸을 당시, 동시대 작가의 작업과 더불어 전한 우타가와와 목판화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도 익숙한 '피도'로 유명한 호쿠사이(가쓰시카(Katsushika Hokusai))처럼 대담한 구도와 색상이 아니라 잔잔하고 담백한 느낌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구마 겐고는 자연 친화적인 우타가와와 작업에서 받은 영감을 바토 히로시게 미술관 설계에 반영했다고 한다). 바토 히로시게 미술관 탄생담과 비슷하게도, 건물 일부는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택을 개조한 필자의 숙소 역시 알고 보니 이 지역 출신인 한 유복한 집안(이즈타미)에서 마을에 지택을 기증한 사례다. 또 다른 '작은' 건축에서 할 수 있는 이 호텔은 지속 가능한 여행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입실하는 투숙객에게 발품을 팔 만한 인근의 명소를 소개하는 인증받은 그림 지도 꾸미기를 제공한다(대근처 맛집이나 미술관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쿠폰까지 살뜰하게 챙길 수 있다). 다음 날, 연휴 기간이라 오후에나 버스가 운다(예 정각엔 차린 일본산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카페엔도 섭취하고 다른 시간대의 풍경을 볼 겸 다스 미술관을 찾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서노라니 마침 은은하게 울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먼 곳까지 찾아온 작은 숙소에 대한 보상이라도 건네는 듯한 첼로 연주였다. 미술관 앞 부지와 푸들을 연결하는 트인 공간에서 한 남성이 활을 놀리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가만히 서서 듣고 있는데, 때마침 일 사이로 불어와 얼굴을 갸웃하는 산들바람까지 가세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타지에서 온 여행자에게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시공간이 있을까 싶은 순간이었다. 글 고성연



# Perfect for you

뛰어난 소재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매번  
하이 퀄리티의 백과 의상을 선보이는 랄프 로렌에서  
5월을 맞이해 제안하는 스페셜 위시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가존 리키 백보다 가볍고 유연하게 재탄생한  
소프트 리키 33. 이탈리아에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폴 그레이  
 가죽 소재로 고급스러운 감성을 전한다.  
 랩 스킨으로 안감 처리하고 커스텀 메이드  
 리키 록으로 완성도 있게 마무리했다.  
 R.L. 골드 색상 5백3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RALPH LAUREN

부드러운 이탈리아산 L.파 가죽을 사용해  
이탈리아에서 최대 8시간의 공정을 거쳐 재탄생  
소프트 리키 27 백. 아이코닉한 리키 백을 가볍고  
컴팩트한 실루엣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본딩 처리한  
카프 스킨 안감을 닷대 풍부한 색감을 부여하고  
커스텀 로고를 영보심 처리한 가죽으로 감싼  
시그처 록으로 완성했다. 4백5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660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의 아이콘인 쿠퍼백 디자인에 빈티지한 영국 새들 카리아의 풍격을 더해 완성한 쿠퍼 페퍼 카프 스킨 더블백. 페퍼 풀 그레인 카프 스킨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이탈리아에서 직접 제작했다. 시그니처 브라스 하드웨어로 마무리했다. 6백5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위부터)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의 2024 스프링 시즌 전선에 걸쳐 사용하는 인디고 컬러를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 세심하게 오버다이 처리한 가벼운 라틴으로 제작한 셔츠. 플래드 패턴 디자인이 돋보인다. 1백만원대, 칼라드 및 레이어를 입은 미스터 로렌의 아카이브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칼라드 모노그램 포폴린 셔츠. 1백20수 2겹 면사로 이탈리아에서 제작했으며, 이브데코에서 영감을 받은 R. 모노그램이 특징이다. 7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에디터 **성영민**



# Beyond the Classic

이그조틱 레더로 재탄생한 펜디 피카부의 뉴 타임리스 클래식,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고급 카본 가죽을 사용한 이상적이고 콤팩트한 사이즈의 아이코닉한 피카부 아이씨유(See U) 백. 트윙스틱 록 잠금장치로 클래식한 무드를 더했으며, 내부 수납공간 2개와 견고한 피티선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토트백이나 크로스 바디 스타일로도 연출 가능하다. 7백78만원 펜디.

2009 S/S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펜디는 우아함을 잃지 않는 클래식한 여성을 위한 백을 처음 선보인다. 바로 '찾았다, 까꿍(Peek-a-Boo, I See You)'이라는 아이들 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의 피카부(Peekaboo) 백이다. 창립자 아델 펜디의 손녀이자 현재 펜디 액세서리와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실비아 벤투리니 펜디(Silvia Venturini Fendi)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양 옆으로 나뉜 구조로 가운데 분할 판을 두고 앞면의 덮개를 밀어 내리면 자연스럽게 내부가 드러나는데, 그 형태가 '피카부'라 말하는 입 모양, 스마일, 또는 사람 얼굴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카부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는 가방의 외부뿐 아니라 내부까지 정성 들여 제작한다는 펜디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피카부의 바탕에는 최상의 기술로 최고급 레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펜디 장인들이 있다. 어떠한 소재나 레더를 가지고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완벽한 마감 처리와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이는 피카부 백은 데뷔 후 무한한 진화를 거듭했다. 16cm의 나노 사이즈부터 33cm의 미디엄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에 대한 도전을 이어왔다. 이로써 다양한 취향을 지닌 여성들을 만족시키는 선택지가 넓어진 것은 물론, 숄더 스트랩, 우드 또는 루사이트(Lucite) 소재의 핸들, 셀러리아 스티치 디테일을 더한 숄더 등 시종별 디테일이 돋보이는 여러 버전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구조적인 진화와 실험을 통해 2020년 F/W 시즌에는 간결한 그래픽이 돋보이는 아코디언 형태와 날렵한 대각선 형태의 측면을 갖춘 아이씨유(I See U)를 새롭게 공개했으며, 2023년엔 마크 제이콥스와 협업해 완성한 피카부 백을 출시했다. 이처럼 펜디는 피카부를 통해 미래적인 타임리스 클래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올해 피카부에서 또 한 번 장인 정신을 담아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급 이그조틱 레더를 더해 럭셔리로 극치를 보여준다. 피카부는 아이코닉하고 클래식한 디자인과 화려한 이그조틱 레더의 만남으로 또다시 진화했다. 특별한 백 컬렉션인 만큼 제작 과정에서 레더 선정부터 금빛 아연도금, 정성스러운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펜디 장인들의 기교와 완벽주의를 반영했다. 펜디의 이그조틱 레더는 본연의 패턴



을 살리고 자연스럽게 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 때문에 똑같은 레더는 어디에도 없으며, 작품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차이는 레더 자체는 물론 완성된 제품에서도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하며, 제품 하나하나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된다. 여기에 프레스스 스톤, 지르콘, 우드, 메탈 등 최고급 장식으로 가방을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요소의 품질을 최상급으로 유지한다. 시즌을 거듭하면서 이러한 디테일은 펜디 브랜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그니처가 되었으며, 백을 주얼리처럼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준다.



## 피카부 이그조틱 레더의 세계

피카부 이그조틱 레더 컬렉션에서는 총 8개의 색다른 매력을 지닌 레더를 선보인다. 이 중 다채로운 컬러로 선보이는 셔우드 피니싱한 엘리게이터 레더와 샤이니 또는 빈티지 피니싱한 크로커다일 레더 버전, 유광 피니싱한 카본 레더 버전이 특히 돋보인다. 셔우드(Sherwood)는 색상을 여러 겹 입혀서 표현하는 효과로 엘리게이터 레더의 전체 표면에 밝은색을 시작으로 점점 어두운 색상을 입히고, 마지막에는 장인이 페드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표백해 색상 일부를 제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톨도이즈의 색감이 구현되며, 수작업이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낸다. 샤이니 피니싱한 크로커다일 레더는 미네랄과 합성 성분으로 태닝한 레더에 스티머를 사용해 최종 가공한 후 더욱 우아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완성한 레더는 광택과 천연 소재 본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준다. 반면 빈티지 피니싱 레더는 광택이 돌지 않고 촉감이 매우 부드럽으며, 소재 본연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오묘한 매력의 카본은 이그조틱 물범 가죽으로 파이톤만큼 활용도가 높고 시크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특징이 있다. 가죽을 완전히 표백한 다음 배럴에 담가 염색해서 시크하고 우아한 광택을 내는데, 이 공정이 끝나면 장인이 특수 에어 브러시를 사용해 원하는 색감이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가죽을 재색해 완성한다. 펜디에서는 이 아름다운 레더들을 고객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 자신만의 백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It's Salleria MTO(Made to Order)". 펜디 피카부 백의 레더 소재와 컬러부터 부자재까지 각각의 취향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든 매장에서 3백65일 주문 가능하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 직원과 상담한 후 로마 본사에 주문서를 제출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백의 가장 메인인 되는 레더부터 플렉시바와 클로저 같은 액세서리도 선택 가능하다. 여기에 인그레이빙까지 더할 수 있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방을 제작할 수 있다. 레더는 쿠오이오 로마노 레더 최대 3컬러, 파이톤 최대 1컬러로 선택 가능하며 플렉시바는 무려 4컬러, 클로저는 스와로브스키 소재 8컬러 혹은 이니셜 에나멜 8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인그레이빙은 최대 8자까지 가능하다. 피카부 백의 경우 여성 백 3종, 남성 백 2종, 총 다섯 종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펜디 피카부 이그조틱 레더 컬렉션을 통해 진정한 하이 럭셔리 피카부 타임리스 클래식을 완성해보자. 문의 02-544-1925 [www.fendi.com](http://www.fendi.com)



1,2 2024 S/S 컬렉션에 등장한 카본 소재의 이그조틱 레더 컬렉션 피카부 아이씨유 백 백트.  
3 피카부 아이씨유 스톤 핑크 크로커다일.  
4 샤이니 피니싱을 더한 S/S 2024 피카부 미니 라이트 블루 크로커다일. 5 S/S 2024 피카부 미니 블루 크로커다일.



# Ultimate Repair

피부 본연의 활력과 승고한 광채를 일깨우고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유효 성분을 풍부하게 담아낸 샤넬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스킨케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피부 활력을 복돋고 승고한 광채를 일깨우다

폴리프렉싱 과정을 거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놀라운 힘과 감각적인 스킨케어를 결합한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스킨케어, 수블리미지 스킨케어 컬렉션은 오랜 시간 많은 이에게 사랑받으며 리안을 확장해 왔다. 그리고 올해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토너 수블리미지 라 로 씨옹과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에멀전인 수블리미지 르 플루이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귀중한 원료인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밀크를 함유한 수블리미지 라 로 씨옹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과 활력을 충전해주는 프리미엄 모이스처라이징 토너다. 피부에 신뜻하고 부드럽게 스며들어 감각적인 스킨케어를 즐길 수 있다. 또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피부 장벽 유지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는 포몰러로 오랜 시간 강력한 수분 충전 효과를 선사한다. 그리고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루쿠 씨앗 추출물을 함유한 수블리미지 르 플루이드는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워주고 유분 레벨을 관리해주는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에멀전이다. 수분감, 편안함, 주름, 탄탄함, 균일함, 피부 강화, 광채 등 샤넬 연구소에서 정오한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집중 작용한다. 가볍고 부드러운 포몰러로 번들거림을 줄여주며, 모공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무엇보다 사용 후 부드럽고 신뜻한 감촉과 함께 매트 파우더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 궁극의 인티에이징 제품을 찾고 있다면 수블리미지 스킨케어 리추얼을 추천한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수블리미지 라 로 씨옹 프리미엄 모이스처라이징 토너 125ml 21만1천원, 수블리미지 르 플루이드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에멀전 50ml 44만8천원, 수블리미지 라 크렘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크림 50g 61만2천원, 리필 50g 52만원, 수블리미지 레방스 톨다멘탈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에센스 40ml 67만원.



## 건강한 광채로 가득 찬 피부

피부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뷰티 리추얼, 수블리미지 쿼미에르를 소개한다. 수블리미지 쿼미에르 컬렉션은 두 가지 핵심 성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워터다. 샤넬 연구소는 2006년 최초의 자연 유래 활성 성분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PFA를 개발했다. 이 활성 성분은 피부에 강력한 에너지와 공급하는 데 탁월하다. 특히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고포리에서 추출한 워터는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은 피부 광채를 위한 알프스의 보석, 인텔리스 추출물이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 자라나는 인텔리스는 빛을 받을 수만 있다면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인텔리스에서 얻은 추출물을 함유한 피부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착색으로 인한 칙칙한 피부 톤에 작용하며, 세포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효능으로 피부 톤을 균일하게 정리한다. 수블리미지 쿼미에르 컬렉션에는 이토록 귀중한 성분이 담겨 있다. 피부 광채를 위한 프리미엄 스킨케어의 첫 단계 제품으로는 수블리미지 라 로 씨옹 쿼미에르 엑스폴리안이 제격이다. 각질 토너 역할을 하며, 신뜻한 텍스처가 편안하게 피부를 감싸주고 투명한 피부로 기쁘게 한다. 또 다크 스폿을 감소시켜 주고 균일한 피부결을 선사한다. 그다음 수블리미지 레방스 쿼미에르는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성분과 더불어 풍부한 수분감을 지닌 글리세린과 영양을 공급하는 시아바티도 풍부하게 함유했다. 특히 크림을 바르기 전 단계에서 피부의 광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수블리미지 라 크렘 쿼미에르는 피부에 수분감, 탄력, 화사한 광채를 더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찬 피부로 기쁘게 한다. 비르는 순간 피부가 부드러워지며 최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수블리미지 라 로 씨옹 쿼미에르 엑스폴리안 피부 속 빛을 깨우는 프리미엄 브라이트닝 각질 토너 125ml 19만1천원, 수블리미지 라 크렘 쿼미에르 강력한 에너지와 광채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브라이트닝 크림 50g 52만8천원, 수블리미지 레방스 쿼미에르 피부 광채를 되살려주는 프리미엄 브라이트닝 에센스 40ml 67만원.

## 맞춤형 프리미엄 나이트 케어

바쁜 현대 여성을 위한 맞춤형 나이트 케어,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컬렉션을 제안한다. 이 리안은 고농축 포몰러로 밤사이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선사해 다음 날 승고하게 빛나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컬렉션에만 함유된 하말리아산 스웨티아 성분을 주목하자. 샤넬은 하말리아산 스웨티아를 얻기 위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부탄의 현지 단계와 자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맺고 꽃이 피는 연마다 수작업으로 수확한다. 수확을 마친 꽃은 샤넬 하우스만의 공정을 거쳐 소킨 리페어링 성분으로 맞춤 생산된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공정을 거쳐 탄생한 성분은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며 강력한 리페어 효과를 선사한다.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드 뉴는 폴리프렉싱 과정을 거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를 함유해 피부 보호 및 피부 활력을 깨워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 또 최적의 피부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주는 자연 유래 성분, 크로노펩티드가 피부 균형을 바로잡고 스킨케어 사이클을 유지 및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감각적인 오일 인 워터 타입 포몰러는 피부에 덮여 물로 바뀌었다가 신뜻한 오일 포몰러로 바뀌어 실카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드 크렘은 피부에 활력을 채우고 리페어 효과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고농축 크림으로, 샤넬 연구소에서 정오한 수분감, 피부 편안함, 주름, 탄탄한 피부, 균일한 피부, 피부 강화, 광채 등 다양한 지표에 집중 작용해 강력한 피부 리페어 효과를 제공한다. 관리 후 다음 날 아침, 충분한 휴식을 취한 듯 승고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나고 싶다면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컬렉션을 경험해보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윤자영

(왼쪽부터 차례대로)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드 뉴 피부에 리페어 효과를 선사하고 활력을 깨우는 프리미엄 고농축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30ml 83만원, 리필 30ml 69만9천원,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드 크렘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는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크림 50g 82만1천원, 리필 50g 69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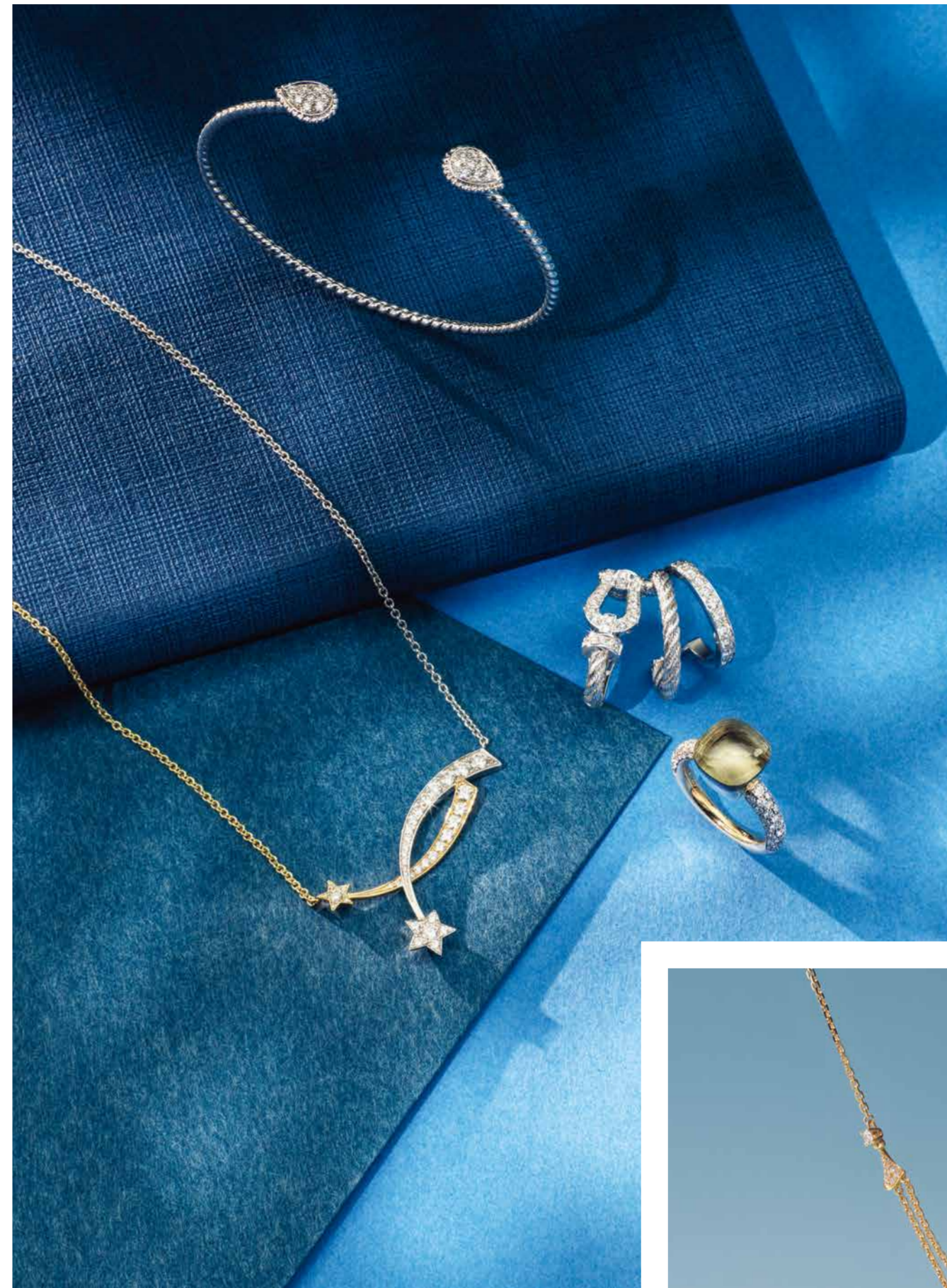




**POMELLATO**

(위부터 차례대로) 단추에서 영감을 받아 유쾌하고 우아한 매력을 더해주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말라카이트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품플랫 이어링, 한쪽 면에는 화이트 머더오브밀과 다이아몬드를, 다른 쪽 면에는 그레이 머더오브밀을 세팅한 품플랫 로즈 골드 소재의 펜던트, 한쪽 면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른 쪽 면에는 머더오브밀을 세팅한 품플랫 펜던트, 한쪽 면에는 말라카이트와 다이아몬드를, 다른 쪽 면에는 화이트 머더오브밀을 세팅해 다채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6905-33420



(위부터 시계 방향) 뱀 머리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드롭 다태양이 돋보인다. 총 0.26캐럿의 16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새빨 보헤미안 모티브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부세론** 02-3213-2246, 총 1.04캐럿의 5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모던함을 강조한 포스텐 싱글 이어링 1천7백43만원 **프레드** 02-514-3721, 총 7캐럿의 프러자일 라이트를 세팅한 대담한 실루엣이 돋보이며, 로즈 골드 소재의 밴드에 총 0.77캐럿의 58개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누도 클래식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02-3143-9486, 총 1.03캐럿의 47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18K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의 하모니가 화려한 멋을 강조하는 꼬메트 네크리스 1천9백만원대 **사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왼쪽부터 차례대로) 입체적이고 생생한 8개의 클라워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 프러플링 가격 미정 **반달리프 이젤** 1877-4128, 여성스럽고 세련된 무드를 겸비한 부채 모티브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로즈 골드 소재에 머더오브밀과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를 다룬 디버스 드림 네크리스 2천1백90만원 **볼가디** 02-6105-2120, 총 2.88캐럿의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 22개를 일깨우 앞뒤 모양으로 정교하게 세팅한 그린카펫 컬렉션 링 7천9백62만원 **쇼파드** 02-6905-3390.

THE BEST GIFT

5월, 당신의 사랑과 감사를 대신 전해줄 선물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hoi min young

에디터 심정민, 윤지영  
이시진, 김민정, 김보민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급스러운 골드 케이스와 화이트 다이얼의 조화가 돋보이는 루이비통에 골드테크™ P. 900 칼리버로 구동한다. 2천4백만원 **파리피** 1670-1936.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38mm 케이스와 매립 브레이슬릿으로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한 트라볼 칼리버 크로노그래프 2천1백57만원 **제니스** 02-3479-1805. 지름 41mm의 옐로 골드 케이스에 은은한 옐로 컬러 다이얼을 매치해 고급스러움을 지니내는 드 빌 프레스트지 1천4백만원대 **오메가** 02-6905-3301. 새틴 파인시로 매혹적인 감성을 부여한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사파이어 크리스털 다이얼로 견고함을 더했으며, HUB171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박형 인테그리티드 타임 오토 7천만원대 **위블로** 02-540-1356. 이이로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명성 높은 옐라인 이글. 지름 41mm의 옐리크 로즈 골드 케이스와 PVD 처리해 독특한 인상을 주는 그린 컬러 다이얼의 조화가 돋보인다. 1억45만원 **스피드** 02-6905-3390. 최초의 파일럿 워치이자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워치로 옐로 골드 케이스에 로마숫자 인덱스가 고급스럽고 강렬한 무드를 선사하는 스톤스 드 카르띠에 가격 미정 **카르띠에** 1877-4326. 지름 40.4mm의 카탈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가독성을 높였으며, 자체 제작 무브먼트 82200 칼리버로 구동하는 포르투가저 오토매틱 40 9백70만원 **IWC** 1670-7363.

(위부터) 다이얼은 물론 베젤과 한자까지 전부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세련해 화려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에저리 셀프 와인딩 다이아몬드 파베 9천4백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지름 35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마다오브필 다이얼을 매치하고 40개 다이아몬드를 더한 베젤과 화이트 악자가족 스트랩으로 완성해 우아한 무드를 선사하는 레이디다이드 컴플리트 칼리더 2천4백만원대 **블랑팡** 02-310-5295.



지름 33mm의 화이트 세라핀과 스틸 케이스에 1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디케이터로 깨끗하고 우아한 감성을 부여한 J12 워치. 칼리버 12.2로 작동한다. 1천4백만원대 **샤넬 워치** 060-805-9628, www.chanel.com.



(왼쪽부터)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불가리 불가리 워치로 블랙핑크 리사의 캠페인에서 선보인 완성했다. 지름 23mm의 여성스러운 스킨 시아즈가 특징이며, 리사의 반짝이는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 약 4백 개의 화이트 마다오브필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완성한 다이얼이 인상적이다. 6백15만원 **불가리** 02-6105-2120. 지름 36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베젤에는 약 0.977캐럿의 6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감성을 더한 홀로 데이티 워치 4천800만원 **피아제** 1668-1874.



(위부터) 텍스처 처리한 자판과 미드릿 칼라의 블루 래커 다이얼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스틸 케이스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별의 반짝임을 표현한 이소브디 룬 워치 2천4백만원대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지름 37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1.28캐럿의 64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을 더하고, 다이얼에는 48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말라카이트 소재로 악센트를 준 라디 디올 애크워일드 방타인피스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02-3280-0104.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경쾌한 스카이 블루 컬러감이 돋보이는 엠보스트와 천연 나무 가죽 소재의 **할렐 엠보스트** 로고 레더 3단 지갑 53만원 **MCM** 1600-1976. 통기성 좋은 라벤 소재의 케이트 로퍼 1백만원대 **토즈** 02-3438-6008.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매디드 스타일의 램 스킨 소재 레디 디올 백 9백만원대 **디올** 02-3280-0104. 디자이너 엘리아스 카푸로스(Elias Kafouros)의 까레 스키트에서 가져온 '파니 아이스크림(Funny Ice Cream)'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에나멜과 골드 도금 소재의 브레이슬릿 95만원 **에트케스** 02-542-6622. 가족의 결을 그대로 실려 고급스러운 무드를 전하는 옐로 컬러 카드 지갑 12만8천원 **히로안 by 폴라온지** 02-3449-5359. 불멸불량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2024 S/S 레디투웨어 컬렉션 슬링백 가격 미정 **샤넬** 080-805-9628. 세련된 깃털이 스타일의 프래인제 산뜻한 라이트 블루를 입힌 경량 메탈 소재 선글라스 50만원 **밴디** 02-544-1925.



**FOUR LOUNG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래식한 스타일의 파니아 햇으로 모자의 리본 밴드 포인트가 돋보이는 보르살리노(Borsalino) 햇 48만8천원, 밝은 톤의 소가죽 트라빙과 캔바스의 대비가 특징인 본판티(Bonlanti) 스포르타 오픈 토트백 33만5천원, 코튼과 실크 혼방 소재로 소프트한 터치감과 유니크한 노트 디자인이 특징인 드레이크스(Drake's) 도트 스카프 21만9천원, 클래식한 무드를 전하는 100% 소가죽 소재 히로안(Hiroan) 연필형 카드 슬롯 14만8천원 모두 **폴라온지**.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내외·부의 다른 컬러감이 매력적이며 슬림한 세이프와 접이식 디자인으로 편의성을 강조한 히로안 레더 슬링 장지갑 32만8천원, 로고 백백 포인트로 세련됨을 부여한 가죽 소재의 산토니(Santoni) 로우탑 스니커즈 84만5천원, 라운드 토의 클래식한 실루엣으로 완성한 누백 소재 산토니 스웨이드 로퍼 98만5천원, 핸드 다이드 및 브러시 처리한 가죽으로 정교하게 제작한 브리프케이스로 길 포켓이 있는 월렛 및 나뭇잎금장지를 더한 폴리오 폴더 형태의 스테파노 마노(Stefano Mano) 백 69만5천원 모두 **폴라온지**.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청링 50주년을 맞아 제작했으며, 캔버스 소재에 브랜드 네임을 새긴 펠리시(Felis) 파우치 85만8천원, 광택감 있는 스트랩이 포인트로, 조절 가능한 비글 스트랩과 유연하고 가벼운 소재가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아리조나 엠보싱 슬라이드 버킨스톡(Birkenstock) 14만5천원, 유니크한 스퀘어 세이프에 달착 가능한 슬더 스트랩과 마그네틱 버튼이 있는 상단 잠금장치, 내부 지퍼 포켓으로 활용도를 높인 본판티 토트백 29만5천원,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와 볼레로 디자인의 세련된 가죽 소재, 컬러감이 돋보이는 히로안 볼레로 레더 반지갑 31만8천원,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제작했으며, 뒤꿈치 부분에 가죽 로고 디테일 마감과 라상에 최적화된 실루엣이 특징인 산토니 남성 스트래치 니트 스니커즈 94만5천원 모두 **폴라온지**.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풍선 6개가 각인되어 있는 쿨링 카드(Cooling Card)의 컬러풀 풍선 생일 축하 카드 1만9천원, 데이지 디자인의 크리스탈이 돋보이는 925 스텐링 실버 소재의 헤르켈스(Hatton Labs) 아쿠아 데이지 테-스 브레이슬릿 59만5천원, 욕기형 스크래치 디테일로 포인트를 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텐링 실버 소재 엠마누엘레 비오چی(Emanuele Bionocchi) 스크래치 시그니팅 링 37만5천원, 무광택 오닉스 스톤을 세팅한 로돌 스테이오시안(Tateossian) 로돌 시그니팅 링 82만5천원, 정교한 마블무늬 크리스탈이 돋보이는 헤르켈스 플러스 테-스 브레이슬릿 59만5천원, 왓슨 링크 체인과 마르베스크 주사위 펜던트로 심플하고 아름다운 네크라인을 표현하는 은은한 스텐링 실버 소재의 엠마누엘레 비오چی 아리베스크 디스 네크레스 45만5천원, 분홍색 진피와 금 글로로 2개의 와인 진을 각인한 쿨링 카드의 웨딩 스타일 카드 1만9천원 모두 **폴라온지**, 문의 02-3449-5359





**GIVENCHY**

(왼쪽부터 차례대로) **르 소와 노와 로션 에센스**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에나츠를 가진 바이탈 알기에서 추출한 Black™을 함유해 피부에 항산화 효과를 선사한다. 특히 피부 진화에 수분막을 공급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한다. 150ml 18만3천원. **르 소와 노와 프로텍션 유보이 콤팩트**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제각각 콤팩트로 도사의 외부 환경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윤기를 조절한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 바이탈 알기 추출물과 프렌치 레드 알기 추출물을 함유해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또 블랙 & 화이트 미블 텍스처가 하루 종일 피부를 편안하게 유지한다. 12g 15만9천원. **르 소와 노와 마이크로-광안티데** 눈부신 피부 광채와 탄탄한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무지개빛 알기 추출물과 바다 수산화 추출물을 함유했다. 무엇보다 피부에 흡수되는 순간까지 생분을 신성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이탈 알기를 캡슐화한 8천 개의 마이크로 펠이 포인팅다. 텍스처가 가볍지만 피부 깊이 영양을 전달한다. 30ml 59만2천원. **르 소와 노와 크림** 알도감이 느껴지면서 가벼운 파우더가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벨벳 같은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블랙 알기 추출물이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자외력을 향상시켜 본인의 젊은 광채를 돋보이게 한다. 50ml 53만9천원. 모두 **자점시뷰터**. 문의 080-801-9500



(위부터 차례대로) **에이피 뷰티 에이피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피부 특수 케어에만 사용하던 고효능 성분과 기술을 담아낸 리페어 인티에이징 크림으로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50ml 41만5천원 080-023-5454. **함몰 클리닝피피피 더블 트리트먼트 에센스** 피부 턴오버 주기를 22일로 빠르게 개선하여 네 가지 프로 폴링 산을 함유한 포몰라가 피부 속부터 수분을 축적해 맑고 산뜻하게 가꿔준다. 150ml 15만6천원 080-022-3332. **겔링 아베이 로얄 더블 클리닝피피피 & 리페어 에센스** 독자적인 성분인 엑스클루시브 로열젤라피 네 가지 허니,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이 피부에 활력을 선사한다. 여기에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비타민 C 유도체가 빛나는 피부를 가꿔준다. 150ml 18만1천원 080-343-9500. **리프라이프 화이트 케비아 쥬얼 인퓨전** 알루미네오 쥬얼 성분 쿠이도스™와 스위스 골든 케비아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페이스 세럼으로 분연의 광채가 살아나도록 돕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며 탄력을 개선한다. 30ml 1백4만1천원 02-6390-1170. **스위스퍼펙션 셀룰라 에센셜 비타민 크림**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산화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크림. 비타민 리제일 성분으로 안색을 밝고 균일하게 가꿔준다. 30ml 35만5천원 1644-4490. **다올 뷰티 다올 프레스티지 르 콩생트레 에 오** 로즈 그드랑의 건강한 힘을 가득 담은 로사베타이드™ 복합체와 효모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포몰라가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하고 눈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15g 33만원 080-342-9500.



(위부터 차례대로) **자형시랑베르디 마스카라** 꾸러민 볼을 깊고하고 이뽁하게 곱힌된 속눈썹을 연출한다. 특히 오랜 시간 반지지 않고 풍성한 볼륨을 선사하는 동시에 90%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속눈썹에 영양을 공급한다. 8g 5만3천원 080-801-9500. **바버리 뷰티 키세스 매트 립 15 덤퍼** 저 동양인에게 잘 어울리는 톤 다룬된 립 피치 컬러로, 발벳 매트 파우더와 장시간 지속되는 롱래스팅 포몰라가 특징이다. 여기에 허일무른산을 함유해 부드러운 발림성을 자랑한다. 3.3g 5만7천원 080-850-0708. **롱 포드 뷰티 쉐어리 라이드 립 블러시** 미세한 금 입자의 투명한 포몰라가 입술을 자연스러운 핑크빛으로 물들인다. 호호바 오일과 해바라기씨유를 함유해 촉촉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6ml 8만5천원 02-6971-3211. **조르조 아르마니 마이 아브라니 투고 에센스 인 파운데이션 쿠션 누드 케이스** 브랜드의 베스트 아이 템이 사랑스러운 누드 핑크 톤이 녹아든 매트 레이크의 한정판 패키지를 입었다. 얇은 밀착력과 탁월한 지속력을 자랑하며, 풍부한 스키퍼어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케이스 3만6천원, 리필 15g 6만9천원 080-022-3332. **니스 블러쉬 오라기름** 골든 시카를 함유한 피치 핑크 컬러로 한 번의 터치만으로 건강한 핑크를 연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차음 비린 컬러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장점이 돋보이며, 가볍고 살짝 톡톡 터치가 여러 번 덧칠해도 뽕뽕이 지고 자연스러운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4.8g 4만9천원 080-564-7700.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레 엑스클루시브 드 샤넬 코메트 오 드 파르페** 포근한 파우더의 헬리오트루프와 아이리스 노트에 프루티한 체리 블러시가 풍성하게 아우라주는 파우더리 플로럴 향이 신비로운 느낌으로 피부를 감싼다. 75ml 35만원 080-905-9638, www.chanel.com. **겐탈리온스 알몰라 EDP** 강렬하며 관능적인 프루티 앰버리 계열의 향으로 짙은 일곱한 지푸 향사시토 짙은 인센스 향기 조화를 이룬다. 이어 스페이시한 카리암과 사프란이 풍성한 진함을 유추해주는 바닐라 노트와 함께 그윽한 아몬드 향이 머무러온다. 100ml 38만1천원 080-363-5454. **푸에가 마 1833 기념리콜라 하스트** 뉴욕 남북 종단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우드 향으로 퍼발싱과 토티코, 자카란다 우드 향이 조화를 이뤄 묵직하고 강도 높은 진향이 특징이다. 100ml 69만3천원 1800-5700.



# True Organic

엄격한 동물 복지 표준과 환경에 따라 생산하고 가공하거나, 재료로 쓰인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품에만 허락되는 유럽연합(EU) 유기농 인증. 나 자신은 물론 지구까지 고려한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첫 단추다.

농업과 경작, 동물 사육, 그리고 요리 방식에 관련된 유구한 전통을 지키려는 관습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특히 높이 평가한다. 스페인의 따사로운 햇볕을 받고 자라는 올리브나무 숲, 아일랜드의 푸른 초원까지, 유럽연합의 광활한 영토는 다양한 지리와 문화, 역사의 본거지다. 이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독보적인 식음료 제품이라는 아주 특별한 미식 유산을 형성했다. 무엇을 먹는지가 나를 결정한다면, 종자 선택, 동물 복지,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규정을 따르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은 필수다. 이러한 유기농 식품을 통해 동시대 미식가들이 식탁에 올릴 식품을 영리하게 고르고 식습관을 새롭게 정립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의 건강한 영양 섭취까지 지키려는 취지로 지속 가능한 식품 전략을 수립한 이유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은 집에서 요리하는 인구가 점점 늘고 건강 기능 식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절 음식과 유기농, 채식 밥상이 21세기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바쁜 업무 스케줄을 소화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돌보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고려한 식단까지 챙기려면, 만들기 편하고 맛있으면서 믿을 만한 식품으로 만든 한 끼를 찾는 수밖에 없다. 한눈에 쉽고 빠르게 유기농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안한 나뭇잎 모양 로고는 유럽연합 식품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데, 표기 대상 식품에는 과일, 채소, 육류, 가금류, 유제품, 치즈, 올리브 오일, 와인까지 포함된다. 해당 유기농 로고가 붙었다면 재료로 쓰인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다는 의미다.



ENJOY IT'S FROM EUROPE



EUROPEAN UNION



항생제와 호르몬제 사용을 제한하고 매우 한정적인 살충제와 화학성분만 사용하는 유기농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한마디로 유기농 인증 식품을 섭취할수록 지구는 변형하고 나 자신은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영양가 높은 식단을 짜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해졌다는 사실이다. 충분히 맛있는 유기농 식품을 접시에 담아내기만 하면 된다. 핀란드산 블루베리를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그릭 요거트 위에 뿌려 먹거나, 슬로바키아에서 재배한 토마토에 슬로베니아산 올리브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먹는 식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낼 수 있다. 평소 가족을 위한 식사 외에도 사랑하는 이를 위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유럽에서 온 유기농 식품의 풍미를 즐겨 보자.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리투아니아산 유기농 호밀빵은 1백 년 넘게 전해 내려온 레시피로 만든다. 루마니아산 양유 치즈, 스웨덴 장인의 손길에 느껴지는 링곤베리 잼까지 곁들여면 멀리서도 유럽 식문화를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유럽 식음료의 걸 포장지에서 유기농 로고를 찾지만 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지구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에서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캠페인을 전개한다. 다양한 토양과 원료, 생산 방식, 문화에 기반한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연합 식음료의 풍미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알리는 캠페인이다. **에디터 윤지영**

- 1 신선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슬로베니아산 올리브 오일. 2 스웨덴 장인의 손길에 느껴지는 링곤베리 잼.
- 3 상식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유럽산 유기농 채소. 4 깊은 풍미를 선사하는 루마니아산 양유 치즈.
- 5 1백 년 넘게 전해 내려온 레시피로 만든,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리투아니아산 유기농 호밀빵.

공식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인스타그램  
@euagrifood\_korea



웹사이트  
colours-by-europe.  
campaign.europa.eu





# editor's Pick

소장욕을 자극하는 예쁜 패키지가 더해 선물하기 좋은 이달의 뷰티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on sang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AHC 마스터즈 멜라프로텍트 워터풀 선풍 크림 인센드림 선크림은 영양력 못 말할 줄 알았다. 이 제품을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빌립상부터 일몰. 물리거나 들뜨거나 하지 않고 썩 흡수되며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편안한 것은 물론, 촉촉하면서도 오랜 시간이나 지노도 선크림 특유의 유분이 올라오지 않는다. 약간의 톤 보정 효과도 있어 요즘은 생활에 이거 하나만 바르고 다는 중. 40ml 2인1천원. 문의 080-332-0855\_by 에디터 선정임

다들 뷰티 다들 아티스트 립 틴트 #831 내후철 체리 립 틴트를 바른 후 그 위에 립스틱을 덧바르면 아무리 핑카를 먹어도 립 메이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틴트를 들은 후, 우연히 이 제품을 만났다. 립스틱을 바르기 전 단계에 딱 사용하기 좋은 립 틴트 느낌. 입술에 강력하게 스며들어 잘라 유지되지 않는 립 메이브였음은 완성했다. 5ml 1인1천원.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선정임

영꾸리 코어 브라이트 커버 쿠션 02 월 베이지 수경 화장하기 간편하다는 쿠션의 장점과 매우 충실한 제형, 오후만 되면 촉촉 흐르는 유분은 확 잡아주고 피부 톤은 한층 더 밝아지면서 보습보습과 깨끗한 피부로 연출해준다. 톤 보정과 잡티 커버력도 훌륭하며, 디크닝 없이 오래 지속되는 점도 만족. 15g 4인1천원. 문의 1588-7667\_by 에디터 선정임

센트룸 우먼 더블 업 펠스 꼭 챙겨 먹던 센트룸이 비타민 성분을 업그레이드했다는 반가운 소식. 비타민 B군 8종 함량을 모두 2배로 높이고, 신장과 근육 건강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을 추가해 총 23가지 필수 비타민 및 미네랄로 알차게 담았다. 84g, 60점 2인1천원. 문의 080-530-4100\_by 에디터 선정임

랑콤 영 울트라 웨어 폼라시온 파운데이션 B-01 기바은 포물라가 피부에 초 미착되어 마치 원래 내 피부가 좋은 것처럼 연출하는 공극의 파운데이션. 무엇보다 허균균을 포함한 81% 스킨케어 베이스가 마르지 않는 화사한 세미 매트 피부를 선사한다. 30ml 8인1천원. 문의 080-835-0094\_by 에디터 선정임

인생로망 뷰티 퓨어 샷 나이트 리부트 세럼 밤사이 피부가 재생되는 골든 아워에 하는 뷰티 케어는 그 어떤 케어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선택한 이 세럼은 대량 각질 케어뿐만 아니라 영양을 충분히 충전하는 걸 도와준다. 로라트 선안장꽃 추출물을 함유한 포물라가 피부에 광채를 부여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강화한다. 30ml 14인1천원. 리필 12인1천원. 문의 080-835-0089\_by 에디터 선정임

시몽 센사리 기든스 컬렉션 바디스크림 싸니 리시 건조해진 요즘, 어느새 허탈하게 일어나는 각질로 고민이었는데 마벨이 풍부한 시몽 스킴을 다한 이 제품을 사용했다. 부드러운 피부를 되찾았다. 스크림 제품이다 보니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주 1~2회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 상큼한 베르가모트와 라벤더의 포근한 향까지 마음에 들었다. 320g 4인1천원. 문의 1833-6763\_by 에디터 선정임

이세이미에 로디세이 슬라 바이올렛 오 드 퍼플렛 영양스 펠스 진한 향기보다 은은한 향이 영는 걸 선호한다. 수분은 머금듯한 플라워 향에 달달한 과즙 향을 살짝 가미해 기운이 오른 요즘 날씨에 데일리 향수로 뿌리기 좋다. 이세이 미에의 무드가 담긴 디자인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데,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뒹굴러도 멋있는 보틀 디자인으로 선물하기 좋을 것 같다. 100ml 16인1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선정임

겔랑 아베이 로얄 클라리피어 & 리페어 크림 겔랑 독자 성분인 인스클루시브 로 알라와 내 가지 해를 결합해 활력 있고 건강하며, 젊고 촉촉한 피부를 가꾸준다. 브랜드의 마스터 조형사가 햇살을 듬뿍 받은 신선하고 신뜻한 꿀 향도 넣었다. 기법고 신뜻한 텍스처와 한여름까지 사용하기에 좋다. 50ml 24인1천원. 문의 080-343-9500\_by 에디터 선정임

상투카이 로즈 드 메이 컬렉션 퓨어 로즈 워터 프랑스 남부에서 피는 희귀한 로즈 드 메이 정미를 그대로 담은 페이셜 미스트. 시무실 책상에 놓고 수시로 사용했다니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은은한 꽃향기 향도 마음에 들었음은 뜻하다. 125ml 14인1천원. 문의 070-4370-7511\_by 에디터 선정임

복사랑 에르메 아이리시 플로라 사일 켈 하루 중 하루 보디 제품으로 피로를 풀아주며 힐링하는 샤워 시간을 좋아한다. 이 제품은 프랑스산 아이리시 추출물을 담아 은은한 플로럴 향이 영하는데, 여기에 푸르른 그린 우디 계열의 신선한 향이 살짝 더해져 썩고 나면 기분 좋은 진향이 남는다. 특히 기법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신뜻한 보습감을 느낄 수 있었다. 250ml 3인1천원. 문의 02-2054-0500\_by 에디터 선정임

랩1899 레드 진생 화이트 세럼 몸매 좋은 홍상을 주원료로 한 비타민 브랜드 랩1899의 신제품 세럼이다. 고농축된 진생-베르가모트와 레드 진생 화이트 성분을 함유해 피부 속 탄력은 물론 건강까지 가득 채워주는 듯한 느낌. 유은 제형의 양을 스프로이트로 조절할 수 있어 편했다. 50ml 4인1천원. 문의 080-710-2304\_by 에디터 선정임

카멜 갈렌들라 꽃잎 진정 에디션 이이 영양이 거저귀 발진이 나면 갈렌들라 크림을 발라 진정시켜주면 해서 이 성분은 효능은 익히 알고 있었다. 이 제품은 갈렌들라 성분 에 트라를 비타민 B까지 더해 트라를 진정 효과적이다. 여드름이나 민감성 피부에도 좋아 촉촉성 크림과 같이 쓰고 있다. 125ml 6인1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선정임



# SHOWROOM

**펜디** 2024 S/S 여성 백 캡슐 컬렉션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여름 날 로마의 홀리데이 무드를 담은 2024 S/S 여성 백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에서 페퀸 (Pequin) 패턴을 사용해 아이코닉한 을 대했으며, 기존 룩을 재해석한 리버스를 형태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544-1925

**에르메스** 2024 F/W 여성복 패션쇼 리씨(Re-sees)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크에서 에르메스의 2024 F/W 여성복 패션쇼 리씨(Re-sees)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앞서 파리에서 공개한 해당 컬렉션 패션쇼 현장을 다채롭게 재현하며 따뜻하고 차분한 컬러웨이로 전개한 다채로운 아이템을 선보였다. 문의 02-542-6622



글로벌브로터 by 폴리온지

**글로벌브로터 by 폴리온지** 글로벌브로터와 베이프의 트래블 컬렉션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폴리온지에서 소개하는 럭셔리 라지 브랜드 글로벌브로터와 베이프가 협업 컬렉션을 출시했다. 베이프의 ABC 카모 패턴을 더한 캐리어 2종과 핸드백 1종으로 구성했으며, 제품 구매 시 라지 태그를 증정한다. 문의 02-3438-6142

**투미** 글로벌 엠베서더 문가영과 함께한 '아스라 (ASRA) 컬렉션' 캠페인 공개 투미가 새로운 글로벌 엠베서더인 문가영과 함께 새로운 핸드백 컬렉션인 '아스라(ASRA)' 컬렉션 캠페인을 공개했다. 크로스백, 숄더백, 호보백 등 3가지 디자인으로 구성해 그날의 무드에 따라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문의 02-539-8950

**파센트오브** 그린피스에 첫 번째 후원 시작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패아밍 소재의 선글라스를 출시한 파센트오브가 함께해온 고객들과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에 첫 번째 후원을 진행했다. 후원 금액은 그린피스가 제작하는 바다 보호 다류먼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70-7778-9085



에르메스

**돌 페리뇽** 로제 빈티지 2009 지난 3월 19일, 평창동 아카이브 PP에서 돌 페리뇽의 세프 드 카브(수석)와 인 에이키 벵상 사프론의 다나와 함께 돌 페리뇽 로제 빈티지 2009'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로제 빈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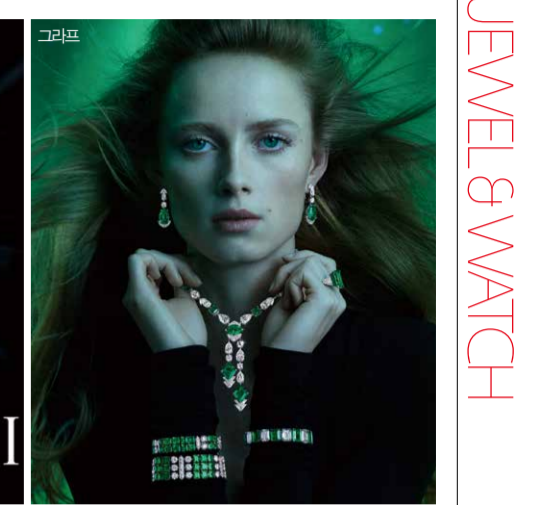
시몬스

2009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시음회에서 음과 경치를 즐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문의 02-2188-5100

**시몬스** 가정의 달을 맞아해 케노사 비스코스프링 원더 필로우 제안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해 기프트로 케노사 비스코스프링 원더 필로우를 제공한다. 부드러운 고밀도 메모리폼과 포켓스프링 기술로 최상의 숙면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리모와** 해머슬라그 컬렉션 프리미엄 라지 브랜드 리모와에서 브랜드 아카이브 디자인을 계승한 리미티드 에디션 해머슬라그를 출시했다. 1968년 출시된 바 있는 아카이브 모델을 재해석해 선보였으며, 해머드 알루미늄 셀 소재에 클래식한 디자인이 어우러진 마멀한 외관이 특징이다. 문의 02-546-3920

리모와



파스가 정인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라디드 디올 에 푸알드 방을 출시했다. 0.28캐럿의 4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핑크 골드 스타를 세팅한 알라카이트 다이얼이 특징이며, 블랙 컬러의 새틴 스텝 스트랩으로 완성했다. 문의 02-3280-0104

**위블로** 빈방 MP-11 워터 블루 스파이어 스위스 워치메이커 위블로에서 MP-11을 반투명 워터 블루 컬러로 새롭게 선보였다. 영롱한 스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해 다이얼을 완성하고 기존의 두께 10.9mm를 유지하기 위해 7개의 베젤을 하부의 속 에 수직으로 배치했으며, 14일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438-6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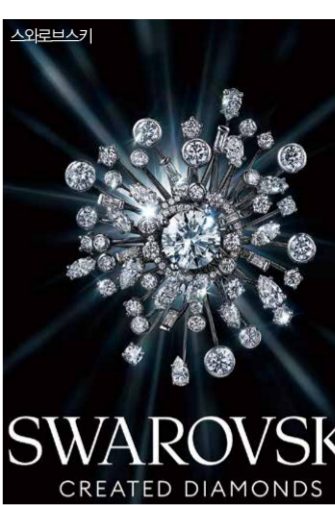
**포말리토** 품퐁 컬렉션 포말리토가 품퐁 컬렉션으로 우아한 주얼리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은은한 로즈 골드 소재에 부드러운 라운드 세이프의 머더오브플라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브라이슬릿, 아아링, 네 크로스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143-9486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브 다이아몬드(SCD)' 파인 주얼리 컬렉션 스와로브스키가 국내 최초 랩 크라운 다이아몬드 선인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채굴한 다이아몬드와 100% 동일하며, 재생에너지, 재활용한 금과 은 소재로 제작해 환경 관련 지속 가능성을 강화했다. 문의 02-3445-0801



**펜할리곤스** 루나 EDT 펜할리곤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달의 여신 루나를 모티브로 한 향수를 소개한다. 베르가모트와 상큼한 과일 향을 시작으로 밤향에서 반짝이는 달빛을 담은 이로미틱한 플로럴 향이 어우러져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문의 080-363-5454

에이피 뷰티



**볼가리** 세르펜티 X 안도 다디오 볼가리가 워츠 & 윈다스 2024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디오와 함께 새로운 세르펜티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협업 컬렉션의 다이얼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컬러를 담았으며, 그린 아벤추리, 타이거 아이, 화이트, 핑크 머더오브발, 총 47개로 구성했다. 문의 02-6105-2120

**그라프** 갤럭시아 캠페인 그라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밤하늘에 영감받아 탄생한 갤럭시아 캠페인을 선보였다. 동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번 캠페인에서 다이아몬드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한 네크리스, 링 등 그라프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2256-6810



**에이피 뷰티** 리프트 앤 리뉴 더블 샷 프로그램 출시 이피 뷰티가 대표 라인인 M.D.에서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할 리프트 앤 리뉴 더블 샷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콜라겐 매트릭스 리뉴얼 기술로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의 주름과 모공까지 개선하며 한 달 동안 사용 가능한 리뉴얼 기술로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의 주름과 모공까지 개선하며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앰플로 구성했다. 문의 080-023-5454

FASHION

LIFESTYLE

JEWEL & WATCH

BEAUTY





Bracelet, Cartier, 2014. Yuji Ono © Cartier 2024

# Cartier, Crystallization of Time

##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

2024. 5. 1 Wed. – 6.30 Sun.

DDP 아트홀 1, 컨퍼런스 홀

DDP Art Hall 1, Conference Hall

개관 시간: 10:00-19:00 (월-목, 일) / 10:00-21:00 (금-토) / 입장권 폐관 45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중앙일보

협조: 온지음, 우쓰노미야 시/오야 석재, 유진 스튜디오 특별 협력: 까르띠에 전시 디자인: 신소재연구소

Time: 10:00-19:00 (Mon-Thu, Sun) / 10:00-21:00 (Fri-Sat) / Admission is open until 45 minutes before closing

Organizers: Seoul Design Foundation, JoongAng Ilbo Co., LTD.

Cooperation: ONJIUM, Utsunomiya City / Oya Stone, Eugene Studio

Special Collaboration: Cartier Scenography: New Material Research Laboratory



Official Website: [cartier-crystallizationoftime.co.kr](http://cartier-crystallizationoftime.co.kr)